

제6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현대문화와 실천신학

일 시 : 2018년 9월 15일(토) 9시 30분

장 소 : 신촌 필름 포럼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목 차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정/ 5

개회예배 순서/ 7

알리는 말씀/ 9

발표원고

제 1발표	성 현/ 11	김선일/ 27	백상훈/ 31	계 재 광 / 35
제 2발표	오동섭/ 39	유재원/ 57	손 문/ 61	
제 3발표	유정현/ 63	황정은/ 67	김경수/ 71	

한국실천신학회 회칙/ 79

한국실천신학회 각종사업일정/ 9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신학과 실천」 연혁보고/ 95

한국실천신학회 제23대 조직표/ 99

학회로고의 의미/ 103

발행색인/ 104

제68회 정기학술대회 일정표

시간	일 정
10:00-10:20	개회와 기도
10:30-12:00	<p>“영화, 영성, 목회” / 필름 포럼과 함께</p> <p>좌장: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발제: 성현 박사 토론: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김선일 박사(웨신대) 영성분과 백상훈 박사(한일장신대) 목회사회/리더십분과 계재광 박사(한남대)</p>
12:00-13:00	점심식사
13:10-14:20	<p>선택발제 : “아름다움과 목회”</p> <hr/> <p>선택발제 1 : 美와 십자가교회의 목회 사례</p> <p>좌장: 신현광 박사(안양대) 발제: 오동섭 박사 토론: 예배분과 유재원 박사(주안장로교회) 교육분과 손문 박사(연세대)</p> <hr/> <p>선택발제 2 : 음악 치유사역 사례</p> <p>좌장: 박종환 박사(실천신대) 발제: 유정현 드림라이프 대표 토론: 상담분과 황정은 박사(성결대) 상담분과 김경수 박사(강남대)</p>
14:30-	폐회 / 영화 감상

개회예배

인도: 김상백 목사

입례기도 ----- 인도자
개회찬송 ----- 9장(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다같이

1.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의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 멘

기도 ----- 황병준 목사

성경낭독 ----- 창세기 1장 27-28절 ----- 민장배 목사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
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묵상 ----- 김상백 목사

마침찬송 ----- 425장(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다같이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체 하여 주옵소서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축 도 ----- 김한옥 목사

환영과 인사(신입 학회원) ----- 김경진 회장

광 고 ----- 서승룡 총무

■ 알리는 말씀 ■

1.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필름포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개회기도회에 순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 직전에 이곳에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번 학술대회는 교회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2개의 상영관에서 진행됩니다. 발표와 논찬 등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 간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에는 다과를 즐기실 수 있으며, 임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접수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8. 제70회 한국실천신학회 및 제47차 한국기독교학회 개최 안내

일시: 2018년 10월12일(금)-13일(토)

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곤지암)

주제: “응답하라 1919:삼일정신과 교회의 미래”

9. 제71회 정기학술대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9 2월 15일(금) 오후1시 - 2월 16일(토) 오후12시

장소: 부평 카리스호텔

주제: “인구절벽 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Practical Theology Task in the Population Cliff Age)

9. 실천신학회 회원가입 안내

한국실천신학회 회비는 1년 단위(3만원)로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회비납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회계(김병석 교수 010 8878-7629)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하신

분들은 연4회 『신학과실천』 학술지를 받아보시며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게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계좌번호:

- 1) 총입출입 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한국실천신학회
-후원금 및 학술대회 연회비관리 등
- 2) 논문게재비 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게재비 심사비 출판비 등, 연구재단 프로젝트 등

제 1 발표

기독교 문화, 영화를 말하다

- 기독교영화관 필름포럼 사역을 중심으로 -

성 현 박사

(필름포럼 대표)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한다.’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근대 이후로 계속되어온 인지 중심의 세계관 담론이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그려온 것에 대해 비판하며 소비중심사회가 주목해온 인간의 욕망에 대해 기독교 교육과 예전이 눈을 뜰 것을 촉구하며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소비주의가 제시하는 삶을 사랑하기에 진리가 제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앎’에만 초점을 둘 경우 세상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경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일차적으로 인지적 성찰이나 우리의 관점에 기초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습득된 습관, 무의

1) 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박세혁 역,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서울: IVP, 2016), 35쪽.

식적 욕망, 지성보다 앞선 성향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욕망과 성향이 형성되는 방식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안에서 변화된 주체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²⁾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전적 신앙 형성을 위한 거룩한 습관과 반복을 강조하며 욕망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상상력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주장했다.³⁾ 본고는 그가 지적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그가 제시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전적 반복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교회 밖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의 욕망과 성향을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가치로 습관화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한 가능성을 기독교영화관 필름포럼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시대의 기독교 문화에 질문하다

① 삶이 있는가?

하나의 사상이 검증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것이 삶으로 정착되고 순환적 체험이 이어질 때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있는가?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현재의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소위 예배와 집회 중심, 회심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많은 문화적 요소들은 전도집회에 쓰이는 회심에 초점을 둔 내러티브에 소요되는 도구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메시지 과잉으로 귀결되고,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회심을 촉구하거나 헌신과 희생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상의 삶과 괴리가 올 수 밖에 없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의 간격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과제를 주게 되며 결국엔 분리하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띄게 된다. 기독교 복음은 초월적 진리로 삶과 무관하게 떠 있지 않다. 기독교 복음은 특정 문화에 자리하고 특정 문화에 영향을 받는 인간으로서 특별한 문화적 순간과 사회적 위치에 충실해야 한다.⁴⁾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삶

2) James K. A. Smith, *Imagining the Kingdom*, 박세혁 역,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서울:IVP, 2018), 40쪽.

3) James K. A. Smith, 위의 책, 314쪽.

4) Barry D. Jones, *Dwell*, 전의우 역, 『드웰 :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서울: 성서유니온, 2016), 273쪽.

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학과 사역이 피상적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와 또 다른 차원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일상을 기독교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의 문제일 것이다. 또는 일상은 직접적인 기독교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열등한 차원으로 인식하는가? 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② 상상력이 있는가?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우리와 동등 6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인의 좋음(good)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는 윤리적 태도의 필수적인 요소로 문학적 상상력을 꼽는다.⁵⁾ 판사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가질 때 그들은 친밀하면서도 공평하며, 편견 없이 사랑하고, 특정한 집단이나 파벌의 지지와는 다르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개별 시민들의 내적 세계가 갖는 풍성함과 복잡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들의 공평성은 우둔해지고 정의는 맹목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⁶⁾ 이것은 기독교 문화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이라 여겨진다. 성서의 텍스트를 오늘날로 가져와 공감과 연대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성장해온 신앙적 배경을 넘어서는 현상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숙고와 타 집단과의 협력을 낮설어 한다. 심지어 배격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 안에는 시급히 상상력이 복구되어야 한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 역시 지배 현실은 제도적이고 지배적인 권위를 누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비판적인 특성을 띤다고 지적하면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지배 현실과 맞서는 새 현실을 제시해 주는 성서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⁷⁾ 그럴 때 비로소 침묵하고 있던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자신의 속내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고, 오랫동안 말이 없던 목소리들이 장막을 벗고 빛 속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5) Martha C. Nussbaum,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박용준 역,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파주: 궁리, 2016), 16쪽.

6) Martha C. Nussbaum, 위의 책, 252쪽.

7)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김기철 역, 『예언자적 상상력』 (서울: 복있는 사람, 2009), 29쪽. 물론 이 때의 상상력이 공상과는 다른 것임은 당연한 전제이며, 직접 닿을 수 없는 상황이나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시선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간이 있는가?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교회의 대안은 공동체라고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공유하는 공동체가 여럿 생겨났고, 제도화된 교회 역시 공동체성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유의미한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공동체라는 말과 인식은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사회학자 김현경은 이에 대해 공동체라는 말에 함의된 절대주의적인 이상적 태도를 경계한다. 보통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의 대조군으로 사회를 상정하는데, 그럴 경우 공동체는 소규모이고, 단순하며, 대면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파악한다. 반면 사회는 대규모이고, 복잡하고, 구성원들이 형식적이고 계약적인 관계 외에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은 채 익명의 개인으로서 서로를 대한다고 본다. 도덕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와 달리, 사회에서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우선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분법은 결국 현대 사회(또는 도시 생활)에 대한 적대와 전통 사회(또는 시골 생활)의 이상화로 쉽게 이어진다.⁸⁾ 하지만 이렇게 친밀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즐겁기만 한가? 를 김현경은 질문한다.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공간이 쉽게 침해당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벽을 없애고 하나 되는 것이 과연 공동체적 삶의 진실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 또는 ‘사회와 공동체’를 대립적 구도로 놓고 보지 않고 상보적인 관계로 상정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인에게 자리와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의 영토에 울타리를 둘러줄 수 있는가? 의 여부다.⁹⁾ 현대인들은 이러한 자기만의 방이 없어 프라이버시가 결여되고, 공적 공간에서는 직장 또는 비용을 거래하며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 상실(placelessness)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동체성과 대립하는 일이 아닌 것이다.

④ 깊이가 있는가?

현대는 가벼움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속도와 이동성을 중요시 하는 현대사회는 가벼움을 신앙처럼 추종하기에 이르렀다. 도서관을 찾아가 분

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202쪽.

9) 김현경, 위의 책, 202쪽.

류체계를 따라 시간을 들여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구하는 것과 달리 손 안에 있는 기기에 몇 번의 터치로 통한 접근으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한다. 가벼운 것에 대한 강박이라고 할 만큼 현대사회는 외모에 있어서의 가벼움부터 권위와 전통에 대한 거부 또는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구하는 쪽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종교와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가와 명상 등은 신체를 단련하고 마음의 평정을 통해 행복감과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삶에 가벼움을 부여해준다. 이러한 추구는 제도화되고 전통이 있는 종교가 주는 내세의 구원을 기대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적 조화와 평화, 자아계발 등을 통해 절대적 의미가 아닌 삶을 가볍게 만들려는 탐색으로 이어진다.¹⁰⁾ 문화와 예술 역시 전통적으로 불멸의 명예와 자신의 창조성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소통으로서의 역할보다 물질적 성공과 미디어를 통한 명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타라는 시스템과 광고를 중심으로 예술적 성취가 아닌 천문학적 금액의 제작비 투자와 회수, 내면의 욕망을 읽어낸 가운데 치열하게 벌어지는 마케팅 전략의 장으로 문화가 소비되고 있다.¹¹⁾ 위대함이 아니라 수익률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의 흐름은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에도 깊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도 발빠르게 트렌드에 맞추는 것을 성육신적인 자세로 오인한다. 정반대의 입장도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락으로만 치부하며 전통적인 방식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여 철 지난 옷을 입듯 과거로의 회귀를 신앙의 순결성과 결부시키기도 한다. 양 극단의 태도 모두 깊이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⑤ 온전한가?

기독교신앙은 죄로 인해 파괴되고 깨어진 자아와 관계, 사회를 회복하는 근원적 힘을 제공해야 하며, 깨어진 삶에 대한 살림을 가져와야 한다.¹²⁾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완벽한 사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끌어안는 빛이 되고, 영원의 소망 안에서 유한의 한계를 끌어안는 애통함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어린 자와 장성한 자가 상호존중 속에 함께 춤을 추며 약함을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워 강함의 존재이유를 일깨워주는 것을

10) Gilles Lipovetsky, *De La Légèreté*, 이재형 역, 『가벼움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2017), 65-67쪽.

11) Gilles Lipovetsky, 위의 책, 227쪽.

12) Barry D. Jones, 위의 책, 88-90쪽.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방식 대신 경쟁과 분리의 방식을 선택해 깨어진 상태를 합리화하며 방치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현대 문화의 방해에 대해 파커 파머는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한다.¹³⁾

분리된 삶은 상처 입은 삶이다. 영혼은 그 상처를 치유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한다.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면 술과 약물, 일과 쇼핑, 분별 없는 대중매체 같은 마취제에 중독되어 고통을 마비시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분리된 채로 살면서 고통을 깨닫길 원치 않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마취제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개인에게는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분리된 삶이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사회 시스템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기능을 맡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온전함은 또한 인간을 넘어선 만물에게도 해당한다(행 3:21). 기독교 문화와 영성에서 인격성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와 초점에서 벗어난 영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 있다.¹⁴⁾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는 특정 집단의 특정 방식의 신앙생활 패턴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반성적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신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신앙의 지평을 넓히도록 격려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합하기 위해 고민하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필름포럼,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다

필름포럼은 2개의 영화상영관(1관 90석, 2관 52석)을 중심으로 카페, 아카데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선교를 지향하는 기독교 복합문화 공간이다.¹⁵⁾ 상기한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의 신학적 논의를 필름포럼을

13) Parker J. Palmer, *A Hidden Wholeness*, 윤규상 역,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 (서울: 해토, 2010), 36쪽.

14) C.Christopher Smith and John Pattison, *Slow Church*, 『슬로처치』 (서울:새물결플러스, 2015), 156쪽.

15) 필름포럼은 1998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임성빈 교수(現 총장)가 설립한 문화선교연구원(2대 백광훈 원장)이 모체가 되어 2018년 15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이사장 오금희, 집행위원장 배혜화)를 개최하는 사단법인 필레마가 2012년 신춘

통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① 소비를 넘어 향유의 삶을 경험하다

영화관과 카페는 소비주의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영화관은 커다란 팝콘과 탄산음료를 들고 쾌적한 공간에서 두 시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다. 대부분의 상영하는 영화도 자본집약적 영화산업의 결과물로서 자본의 회수 및 이윤의 극대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¹⁶⁾ 모든 영화가 그런 목적으로만 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부분의 멀티플렉스(Multiplex)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예술적 성취는 후순위가 된다. 카페 역시 현대인들의 기호식품 중 한 끼 식사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불한다. 커피 역시 재배 농가는 대부분이 빈민국에 속해 있어 거대 다국적 커피 기업과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자본을 중심에 두고 특정산업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필름포럼은 창작자가 저예산으로 만든 작품을 일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상영관을 운영하고, 커피 농가를 직접 선정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커피를 구매하여 적정 수익을 농가에 돌려주는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여 창작자와 생산자에게 지속가능한 창작과 생산을 하는 구조에 참여한다. 더불어 이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규정짓지 않고, 쉽고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며 이 곳을 통해 그에 부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 개념이 아닌 지불한 것을 넘어서는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필름포럼 내에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을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갤러리의 작품을 감상하고, 영화를 보고난 후에 곧바로 퇴장하지 않고 카페에 앉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와 공간을 제공한다. 커피를 마시러 왔지만, 곳곳에 설치된 빈티지 가구를 살펴보고 비치된 기독교신앙서적이거나 인문학서적을 무료로 읽을 수 있고 선별한 기독교도서·심리상담도서 및 기독교찬양음반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아카데미 수강자나 갤러리 관람자들에게도 본래 목적보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필름포럼을 통해 체현(體現)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 문화가 어떤 선교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드러낸 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가치들이 드러나는 문화를 향유하는 삶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두 개의 세미나실과 여유 있는 공간은 서둘

에 있던 기존의 예술영화관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6) 정재형, 『영화 이해의 길잡이』 (고양: 개마고원, 2014), 439쪽.

러 관객을 내물거나 커피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를 열어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것은 아카데미로 연결되어 삶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대화 상대자를 찾아 학교와 같은 제도권 교육의 학위과정이나 고가의 레슨 대신에 비교적 저비용으로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학습공동체로 이어진다. 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여하는 전문가들 또한 기존의 패턴과는 다르게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많지 않은 수의 학습자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며 상호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학습자들도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또 다른 조작과 소유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자아와 세계를 향한 신뢰를 키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곳을 지향한다.¹⁷⁾ 자신들이 익힌 과정을 곧바로 필름포럼에서 실현해 볼 수 있으며,¹⁸⁾ 개설하는 강좌 또한 경계를 넘어 필요한 영역이라면 기꺼이 융합하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개발해가고 있다. 이처럼 필름포럼에서는 보고, 듣고, 먹고, 쉬고,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들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행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운영해가고 있다. 어느 하나의 영역을 위해 나머지 영역이 희생되지 않고, 서로가 가진 영역의 장점과 혜택이 다른 영역에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주고 서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

② 예술을 통해 삶과 신앙의 지평을 넓히다

예술과 신앙의 상관성에 대해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가 전해주는 다음의 이야기는 필름포럼의 사역에도 적용된다.¹⁹⁾

창조적 예술가는 삼단논법을 다루기보다 대전제를 이루는 보편 진술을 다룬다. 이런 이유에서 창조적 예술가는 언제나 혼란을 가져온다. 모든 논리적 논증은 대전제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대전제는 본질상 논리적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예술가의 손은 대전제를 다듬어 세계의 기초를 뒤흔든다. 예술가가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

17)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1), 102쪽.

18) 필름포럼 아카데미 과정 중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미술강좌의 경우, 수강생들이 1년에 2차례 2달간 필름포럼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 Dorothy L. Sayers, *The Mind of the Maker*, 강주현 역, 『창조자의 정신』, (서울: IVP, 2016), 238쪽.

문이다.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삶의 자리에도 예술은 눈길을 준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기적의 순간은 삶을 정확히 재단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경외와 겸손을 배우게 한다. 형언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난제 앞에서 예술은 표피에 머물던 우리의 시선을 내면과 신비의 자리로 인도한다. 물론 모든 영화적 순간과 체험이 이러한 시각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로버트 존스톤(Robert K. Johnston)의 지적처럼 단순한 오락 영화나 현실 도피적인 영화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²⁰⁾ 그러나 예술영화의 경우는 대체로 이러한 영화적 체험과 깨달음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술영화적 문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관객 스스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필름포럼이 여타의 예술영화관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적 대화를 영화와 시도하고, 이에 대한 영화적 비평과 해석을 관객과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다. 모든 예술영화가 기독교 영화이거나 기독교적이지는 않더라도 진정한 인간됨에 대해 그리는 영화는 관객에게 의식 너머의 세계로 안내하고 의미의 창을 열어준다. 사랑과 출생, 일과 죽음 등의 일상 안에 담긴 경험의 위대함을 일깨우거나 악과 배신, 실패와 허무 등 정반대의 것을 묘사하여 무엇인가를 환기시키거나 삶에 대한 부정을 통해 삶이라는 선물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²¹⁾ 여기에 직접적으로 초월과 신비에 대해 말을 걸어오는 영화도 있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은혜를 만나기도 한다.²²⁾

영화라는 매체의 가장 큰 장점은 상영시간만큼 몰입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깊이 있게 하나의 사건과 문제에 대해 체험적 경험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공통의 주제의식에 대해 영화를 보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수용적 태도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준다. 다른 매체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가 대체로 지식전달과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영화는 공감적 경청과 해석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로 이어진다. 영화라는 매체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 Robert K. Johnston,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영화와 영성』 (서울:IVP, 2013), 260쪽.

21) Robert K. Johnston, 위의 책, 254쪽.

22) ‘야곱 신부의 편지’ (감독 클라우스 해로, 핀란드, 2009) 나 ‘나의 산티아고’ (감독 줄리아 폰 하인츠, 독일, 2015)와 같은 작품이 기독교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월과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필름포럼은 다른 영화과는 맥락을 달리 한 영화관련 프로그램이 많다. 우선 연중 가장 큰 행사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꼽을 수 있다. 매년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6일 동안 영화제를 개최한다. 국내 미개봉된 기독교 영화와 예술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영화에 대한 기독교적 담론을 형성하는 축제 개념의 행사다. 이 밖에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매달 한 번씩 월요일 오전에 ‘시네마브런치’라는 타이틀로 영성적 관점에서 예술영화를 보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40-70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시네마나이트’는 평일 저녁에 영화평론가가 심도깊게 영화에 대한 비평과 분석을 해주며, ‘시네마인드’는 정신분석전문가가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시네마토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해주고 관객과 대화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영화에 대한 해설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선교연구원과 함께 ‘무비톡가이드’를 제작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신학자와 목회자 등을 패널로 진행하는 ‘시네토크’도 연다. 2017년 11월에는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기획전을 열었는데, 일주일간 심리와 상담 전문서적을 큐레이션한 영화관 내 서점,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촬영해주는 ‘사진관’, 관계에 대한 영화 상영 및 전문가들의 시네토크로 구성해 다른 예술영화관과는 다른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③ 환대와 참여의 공간을 형성하다

현대사회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토마시 할리크(Tomáš Halík)는 냉소적이고 비양심적인 권력의 위험하고 전체주의적인 요구에도 우리가 거둬들여 잡입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진리에 대한 질문이 최소한 묵살되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²³⁾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오늘날 교회에 신앙의 구도자들이 접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는 친근함 속에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수용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왔던 삶들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개입하고 시간이나 노

23) Tomáš Halík, *Dotkni Se Ran. Spiritualita Nelhostejnosti*, 오민환 역, 『상처입은 신앙』 (서울:분도출판사, 2018), 182쪽.

력 등을 투자하는 문화를 뜻한다. 교회를 그저 친한 사람들과 서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저녁식사 모임 정도로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²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회가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자세이긴 하지만, 기존의 성도들 역시 주중의 일상 후 안식과 배움과 교제의 장으로서 지역교회를 찾는 필요와 맞물리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양자의 필요를 절충하는 지점이 필요하다. 필름포럼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장점은 신앙의 구도자들과 가나안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필요와 이곳을 통해 누리는 혜택에 선호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곳이라는 점이다. 물론 필름포럼은 교회만큼 직접적인 예배와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교회가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가교역할을 하는 환대의 공간이 교회 밖에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필름포럼은 그러한 교회 밖 환대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필름포럼에 오면 자연스럽게 필름포럼이 드러내는 기독교적 정체성에 마주치게 된다. 또한 필름포럼에서 주일이면 오전에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교회와 신앙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관 내에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기존의 교회에 한계를 느끼거나 신앙의 질문을 가진 이들이 주일에 필름포럼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세미나에 참여한다.²⁵⁾ 그것이 직접적인 기독교성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이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든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함께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들에 협력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3. 필름포럼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어디로 가야 할까?

① 창조성

결국 문화는 창조를 할 때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 비평과 해석을 넘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들려줘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상영되는 대부분의 외국 기독교 영화는 미국에서 제작됐다.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24) James Emery White, *The Rise of the Nones*, 김일우 역, 『종교없음』 (서울:베가북스, 2014), 254쪽.

25) 창조의 정원은 2016년 10월 9일에 첫 예배를 시작해서 매주일 오전 11시 성인대상과 어린이 대상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다. 공동체 리더와 설교자는 필름포럼 대표인 성현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과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화목한 가정의 백인 중산층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난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다. 한국의 기독교 영화는 교회가 선호하는 신앙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삶과 같은 다류가 대부분이다. 이 영화들 또한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삶 전반을 담아내며 조금 더 깊이를 담아내는 영역의 기독교 영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형식과 내용을 뛰어넘는 기독교 영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가 필요하다.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과 신학적 사유가 예술로 승화되어 기존의 예술영화가 지향하며 던져온 질문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할 줄 아는 창작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필름포럼 아카데미를 통해 몇 차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매년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는 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사전제작지원비를 지원하며 기독교영화인상을 시상하고 있지만, 문화계 전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기독교적 시각을 가진 창작자 양육과 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²⁶⁾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작자를 길러내야 할 것이다.

② 공공성

현재 필름포럼은 G시네마라는 경기도 내의 공공상영관(약 38개)에서 한국독립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영화관련 행사를 시행하는 사업단체로 선정이 되어 공공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에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예술영화관이 드물어 관객들이 예술영화에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공적인 대안제시인 것이다. 필름포럼 자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영화관이란 명칭의 프로그램으로 교회나 기업의 행사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시네토크를 하고 있다. 영화라는 매체를 매개로 공적기관과 기업을 비롯한 교회 밖 여러 단체와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은 공적영역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라고 봐야 한다. 복지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교회와 기독교단체가 설립한 복지관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해 독점자본주의(monopoly capitalism)에 맞서 공존과 공생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독교 문화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통해 선교를 지향하는 이들

26) 문화선교연구원은 2000년대 ‘몽당연필’(2000)부터 제7회 제천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듀오’(2011)은 같은 단편영화를 꾸준히 제작해 왔고, 뮤지컬 ‘그사람, 장기려’(2011), ‘더 플레이’(2012), 문화매거진 ‘오늘’과 같은 잡지까지 다양하고 의미있는 시도를 해왔다. 2012년 사단법인 필레마가 필름포럼 영화관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영화제와 필름포럼 영화관을 통한 문화선교로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 공적영역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결단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가운데 이러한 영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공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거기에 수반되는 질문, 이슈, 문화적 동향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각자의 신학적 입장이 다른 부분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²⁷⁾ 이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지향하는 단체들은 공공의 영역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야 한다. 문화적 중립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축소하고 직접적인 교회의 이익으로 환원될 때만 나서는 방식의 틀을 깨야 한다. 이웃과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만 복음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③ 영성

인간은 심리적이고도 영적인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만 초월적인 감각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²⁹⁾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며 동시에 초월적인 감각으로 나아갔을 때 이를 수용하고 인도해 줄 영성적인 분별력과 바른 지향점을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필름포럼은 그러한 측면에서 영화와 예술을 통해 인식 너머의 또 다른 가능성과 삶의 다층적인 차원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각이 왔을 때 다음 차원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가? 의 여부다. 교회 역시 교회의 자체의 존립과 성장에만 몰두할 때 영적인 필요를 느끼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해법을 제시하는 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 역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연구하고 사역하는 이들은 문화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와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관계성이 개인의 내적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처한 지역과 사회 속에서 성품과 공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을

27) Miroslav Volf and Ryan McAnnally-Linz, *Public Faith in Action*, 김명희 역,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서울:IVP, 2017), 53쪽.

28)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The Faith of Leap: Embracing a Theology of Risk, Adventure*, 김선일 역,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서울:SFC, 2016), 316쪽.

29) Don E. Saliers, *Music and Theology*, 노주하 역, 『신학으로서의 음악, 음악으로서의 신학』 (대전:대장간, 2010), 115쪽.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배제하고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에만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정직히 인정해야 한다.³⁰⁾ 교회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에 대중문화에서는 명상과 몸의 수련 등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 그동안은 필름포럼 아카데미 내에 개설된 영성 강좌나 시네마브런치에서 이러한 필요를 부분적으로 채워왔지만, 보다 총체적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영성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례강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고, 인근 대학이나 기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와 협력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II. 나가는 말

리처드 로어(Richard Rohr)는 말하기를 ‘인생 전반부의 임무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적절한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이고, 인생 후반부의 임무는 그 컨테이너에 담아서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물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³¹⁾ 이 말을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게 된 한국교회에 적용해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을 짓고, 교세를 늘려가며 신앙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그 컨테이너에 담길 내용물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복음을 믿으라고는 했지만, 정작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주 6일의 삶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해주지 못했다. 말했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비롯되는 풍요로운 삶의 평화와 자유를 삶에서 누리지는 못했다. 이제는 교회 안과 밖에서 경험하며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을 창출하고, 그 공간에서 표피를 넘어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지평의 넓이와 깊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필름포럼 역시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실제로 이 일이 얼마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이 일

30) 지역교회의 목회자 역량에 따라 교회마다 큰 편차가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개교회주의의 한계를 의미한다.

31) Richard Rohr, *Falling Upward: A Spirituality for the Two Halves of Life*, 이현주 역, 『위쪽으로 떨어지다』 (서울:국민북스, 2018), 40쪽.

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기독교는 어느 단체나 미디어에서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되는 살롬과 온전한 삶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논 찬 1

“기독교 문화, 영화를 말하다 - 기독교영화관 필름포럼 사역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김 선 일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성현 박사의 발제문에 대한 본 논찬자의 평은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이유는 성박사의 발제문은 필름 포럼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사역에 담겨진 철학과 실천을 담고 있는데, 논찬자로서 그 현장을 관찰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롯이 글로만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과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박사의 발제문은 학계의 문법에 따라서 직조된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신학과 실천의 융합으로서, 건조한 논리 전개 보다는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제안이기에 본 논찬자 또한 분석과 비평 보다는 경청하며 대화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려 한다.

1. 성박사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질문 (‘시대의 기독교 문화에 질문하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필름포럼,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방향 (‘필름포럼, 그리고 기독교문화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풀어준다. 그는 신학에서 사랑과 습관의 중요성을 비상하게 환기시킨 제임스 스미스를 인용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성박사가 기독교 문화를 신학적 담론이 아니라, 인간의 열망과 삶, 습관, 예전의 경험이라는

장에서 이야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나는 성박사가 신학과 문화에 관한 짧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성을 던졌다고 본다. 실천신학의 영역에서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신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되겠지만, 사실 사람들의 총체적 실천이 응축된 문화는 신학적 담론보다 더욱 원초적인 신학의 재료임이 분명하다. 신학이 있고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고 신학화가 문화가 신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로 보인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는 참회, 감사, 청원일 뿐이다. 이는 신학의 언어라기보다는 삶의 언어이며 문화는 이 언어를 담을 수 있다.

2. 성박사는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기독교 문화에 삶, 상상력, 공간, 깊이, 온전함이 있는지를 묻는다. 내 스스로 어설 프게 이해하는 한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제기한 문제들의 취지에 공감의 간다. 그는 기독교 문화에 삶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문화가 선교나 양육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표현 장르로 국한되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그 동안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접근은 지극히 협소하고 성박사의 지적처럼 도구적인 기능으로 사용되어 왔고 나 또한 이러한 문화이해가 몹시도 불편했다. 그러면서 성박사는 문화라는 매체를 오늘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자각과 상상력에서 관찰할 것을 주문한다. 공간에 대한 질문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대와 장소에 관한 김형경의 탁월한 저서를 인용하는데, 성박사는 주로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역설적 관계를 다루면서 이를 논한다. 공간은 무슨 의미인가? 김형경은 환대란 타자에게 장소(place)를 제공함으로 동등한 성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했는데, 성박사가 의미하는 공간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깊이와 온전함에 대한 그의 논의는 기독교 문화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박사는 그가 책임을 맡은 필름포럼이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읽으면서 가장 즐겁고 설레는 대목이었다. 또한 이 독특한 실천의 현장을 직접 접하지 못했으면서 논평을 해야 하는 아쉬움을 더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소비를 넘어서는 향유의 삶을 경험하는 이야기에서, 기독교 문화를 소비가 아니라, 향유라는 개념을 빌린 것에 놀라울 정도로 반가웠다. 과거 ‘낮은울타리’류의 기독교 문화 비평 작업이 한창 유행하면서 모든 세상의 문화를 사탄의 도구인지 검증하

고 정죄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조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기독교 문화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이자 선물인 문화적 삶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필름포럼은 영화 뿐 아니라, 카페, 도서관, 대화, 배움 등의 문화 생태계를 실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술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히면서 “필름포럼은 그러한 교회 밖 환대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진술은 진정한 문화적 섬김과 선교의 설렘을 일으키는 발상이다.

그럼에도 의문을 갖게 하는 한 대목이 있다. 성박사는 영화와 신학을 접목시킨 로버트 존스톤(Robert Johnston)을 인용하면서, 오락이나 현실 도피적 영화를 통해서 삶을 깊이 있게 깨닫기 힘들다고 하며 예술영화적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성박사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러한 주장에서 예술영화와 오락영화의 이분법이 비쳐진다. 이러한 시각은 더 나아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과 맥을 같이 한다. 오락영화에서 현실에 대한 조명과 깨달음을 얻기 힘들다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한 작위적 구분에 의한 편견이 아닐까? 오락영화나 통속적 대중문화에서도 저자의 의도와 달리 세태를 반영하고, 본의 아니게 삶의 아이러니가 담겨지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닐까? 해석은 이미 저자의 손을 떠나서 자유롭게 부유할 수 있는데 말이다.

4. 끝으로, 성박사는 “필름포럼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의 노정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성을 논하면서, 그는 한국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미국 복음주의권의 영화들이 중산층 가족주의를 추종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상황과 삶의 질문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깊이 사유하지 않는 창조성의 부재로 말미암음이다. 또한 공공성을 논하면서, 기독교적 영화 비평과 토론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 사회적 체제에 대한 (특히 독점자본주의와 같은) 인식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고백하고 포괄적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다면 우리 시대의 서사인 영화를 통해서 공공적 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이 당연한 순서가 생략된 것이 기독교 문화와 영화의 자리를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성박사는 필름포럼의 장에서 영화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영성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영성강좌나 시네마브런치와 같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제안한

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 예술 장르들은 인간의 깊은 사유와 전인적인 열정을 투입하는 작업이기에, 영적인 세계와 유사하며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우쓰노우(Robert Wuthnow)의 실증적 관찰이 떠오른다.

성박사의 발제문은 필름포럼이 추구하며 실천하는 일들이 한국의 문화신학적 지형에서 매우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고마움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필름포럼의 풍성하고 창의적인 사역에는 깊이 있고 치열한 문화신학적 사유가 바탕을 이루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지향하는 단체들은 공공의 영역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야 한다. 문화적 중립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축소하고 직접적인 교회의 이익으로 환원될 때만 나서는 방식의 틀을 깨야 한다. 이웃과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만 복음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성박사의 지적은 기독교 문화 사역의 적절한 로드맵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논찬자가 한 마디 거들자면, 영화라는 매체는 근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다. 성박사가 상상력과 창조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루긴 했지만, 스토리텔링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가 인생과 세계에 대한 성경적 스토리텔링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스토리텔링을 따라 살게 된다. 기독교 문화와 영화의 중대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매끄럽고 흥미로운 성경적 생김새의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것이라 본다. 성박사가 창조성과 생명력 있는 창작을 강조하기에 덧붙이는 바이다. 영화는 이 시대의 신화, 즉 가장 유력한 스토리텔링이다. 단지 성경의 서사를 직설적으로 담으라는 것이 아니다. 톨킨이 C.S. 루이스의 나니아연대기가 직설적인 성경 코드와 주제를 담은 것에 대해 혹독한 비평을 가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독교 영화비평이라면 세상의 영화 속에서 성경적 스토리텔링의 흔적, 혹은 성경이 터치해야 하는 스토리텔링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 이야기나 기독교 주제를 담은 영화 보다는, 기독교적 스토리텔링이 은은하게 바탕을 이루며 상상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치며 인생과 세계를 비추는 그런 영화에서 나는 문화적 향유를 경험하게 된다.

논 찬 2

“기독교 문화, 영화를 말하다 - 기독교영화관 필름포럼 사역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백 상 훈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 기독교 영성)

1.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교회’ 현상은 제도적 교회의 부조리와 성직자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점증하는 인식, 영적 욕구의 미 충족, 그리고 현대사회의 세속화 경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미나 유럽에서 제도나 신념으로서의 종교와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영적인 추구(spiritual quest)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른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현상과 비슷한 맥락에 놓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언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과 삶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청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필름포럼>이라는 문화적 공간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성 현 박사의 주제발표는 시대성을 잘 반영한다.

성 박사가 명시한 것처럼, <필름포럼>은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면서 교회 밖에서 교회와 사회를 이어주고 ‘구도자들’과 ‘가나안 성도들’을 환대하는 공간으로서 우리 시대의 영적 요구에 응답하는 좋은 시도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에 내재한 거대 자본 중심의 독점화, 획일화, 그리고 상업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영화 제작을 독려하면서, ‘국제사랑영화제’와 같은 실험성을 담보한 영화제와 창조적인 토론을 자극하는 각종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을 도모하는 일은 기존의, 교회 내 문화 센터를 통한 사역으로는 불가능한 일로서 <필름포럼>의 고유한 공헌일 것이다.

2.

‘영성’이라는 용어의 기독교적 기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용어는 교회 밖의 영역에서 인간성(humanity)과 존재의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촉발하는 ‘성스러움’의 체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영성은 존재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경험과 이의 표현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경험과 표현은 종종 매체(media) 혹은 장(matrix)를 갖는다. 가령, 기독교 안에서 영성은 예배,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 일대일 영적 지도, (수공업적이고 수도원적인) 노동, 혹은 다양한 종류의 수련들이라는 매체 혹은 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매체 혹은 장은 일종의 해석학적 언어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경험과 표현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의 성격에 따라 성스러움 혹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경험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매체로서의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오감을 통하여 수용되지만, 상상을 활용하는 고전적인 말씀묵상법인 ‘복음관상기도’(Gospel Contemplation)에서처럼, 마침내 수용자의 내적 인식을 자극한다. 가령, 발제자가 각주에서 언급한 영화 <야곱 신부의 편지>에서 1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면 받은 레일라가 늙은 신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일을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여기다가 마침내 신부와 내적 교감 가운데, 마치 정말로 편지가 온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신부에게 읽어주는 장면은 관객으로 하여금 심리적 카타르시스와 함께 존재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내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영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내적 인식 그 자체가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적 인식에 대한 이어지는 반추와 적용은 기독교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필름포럼>의 영화 관련 프로그램이 갖는 영적 의미는 진지하게 받아 들여져야 마땅하다.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인문학적, 신앙적 사유를 촉진하면서 가치

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일이 <필름포럼>과 같은 독립영화관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성 박사가 소개했듯이, 이 영화관의 존재 자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동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부조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반응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기관으로서, 루터교 신학자 폴 티리히가 교회론적 맥락에서 성령의 현존이 있는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서 사용한 ‘영적 공동체’(spiritual community)의 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목회의 정체성과 방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성령의 현존은 도덕(morality), 문화(culture), 그리고 종교(religion)의 세 가지 차원에서 드러나고, 이 셋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티리히의 문화신학적 통찰에 기대어 본다면 <필름포럼>은 티리히 식의 영적 공동체로서 여러 ‘유사-종교적인’(quasi-religious) 활동들을 통하여 존재의 자기-통합(도덕), 자기-창조(문화), 그리고 자기-초월(종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커피 트럭을 통한 ‘모바일 처치’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달려라 커피>(안준호 목사)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필름포럼>이 ‘영적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제도로서의 교회보다는 삶/신앙으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 자체는 하나의 신앙적 행위이자 삶의 고백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여 일반적인 교회의 운영방식을 따라 간다면 <필름포럼>만이 갖는 위상이 흐릿해질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를 가져본다. 또한 <필름포럼>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국제사랑영화제’를 독립영화전용관을 가진 전주와 같은 도시에서 개최함으로써 <필름포럼>식의 모델을 확산시켜 가면 어떨까 싶다.

논 찬 3

“기독교 문화, 영화를 말하다 - 기독교영화관 필름포럼 사역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계 재 광 박사

(한남대학교 / 기독교 리더십)

저자는 [기독교영화관 필름포럼 사역]을 소개하면서, 교회 밖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성향을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가치로 습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문화 이론의 딱딱함을 벗고 실천적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해주며 기독교 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의 제시는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 문화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해주었고, 저자의 분명한 어조는 읽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 저자와 같은 고민을 갖고 글을 읽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자의 글은 그동안 영화와 관련된 기독교문화에 대한 논의들이 영화적 문법을 활용하여 영화라는 포맷(시나리오, 주제, 캐릭터 등)에 한정해서 주로 해석, 풀이하던 일에만 그쳤던 것을 영화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창작, 공공성을 포함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 영화를 통한 관계형성, 콘텐츠

의 깊이 등)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실험함으로, 결국에는 영화를 통한 기독교 문화 이해, 형성, 변혁을 위한 사역의 가능성까지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고 다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고민의 구체성이 어떻게 정답에 가까운 길을 찾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품게 해주었습니다. 즉 많은 글들이 현대 상황 속에서 기독교문화를 생각, 관찰 그리고 분석할 때, 쉽게 드러나는 약점을 들춰내어 아프게만 하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자신만의 방법을 주장했다면 발제자는 삶/상상력/공간/깊이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포함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시각과 방향에서의 필요를 제시하고 나아갈 바를 전해주었습니다.

좋은 글이지만, 말은 임무가 논찬이기에 마음을 담아 숙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족한 이의 시각으로 몇 가지 질문과 궁금했던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름포럼의 정체성이 궁금했습니다.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필름포럼이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인데 과연 그 공간이 교회를 대신하여 비기독교신자를 마중하는 쿠션인지, 교회 옆의 교육관처럼 기독교신자들을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하지만 역량의 부족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선교단체(para-church)¹⁾인지, 아니면 믿음은 가졌지만 기존교회(local church)에 다양한 이유로 거리를 두는 신자 혹은 정착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일종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함인지 궁금했습니다. 필름포럼의 다양한 사역이 정체성을 설정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 정체성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기대하는 필름포럼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름포럼이 기독교 문화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기독교 문화 사역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현장 속의 교회들) 안전한 디딤돌 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 공동체 곧 기성 교회를 '로컬처치'(Local-church)라 한다면 보다 폭 넓은 개념의 공동체(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 부른다. 여기서 '파라'는 '~밖에, 너머, 옆에'라는 뜻과 함께 '반대쪽에, ~에 어긋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로컬처치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기성교회와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는 일종의 '탈(脫)교회'를 가리킨다.

두 번째 질문은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 그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원하는 것들(먹고, 마시고, 즐기는)이 기독교적인 것과 지향하는 가치로의 습관과 연결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리더십 차원에서 조직과 문화의 변화는 각 리더십 수준인 개인 내면 차원, 일대일 관계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이뤄질 때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핵심 특성)과 리더십의 사명(행동 특성) 역시 각 차원에서의 조망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²⁾ 우리의 욕망과 성향을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가치로 습관화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발제문의 3장 기독교문화의 방향성으로서의 창조성과 공공성 그리고 영성을 이야기 하는데, 앞에 서술한 깊이 있는 분석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 창조성과 공공성 그리고 영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앞선 설명이 없습니다.) 잘 요약된 분석과는 다른 결론으로 마치는듯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3장의 내용을 포함하여 글을 구성한 이유를 알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글의 논찬을 통해 아주 좋은 사역의 현장을 경험함과 동시에 독특하지만 꼭 기억해야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코우즈와 포스너는 리더십을 설명하는 150만부가 넘게 팔린 이 책에서 리더십을 설명함에 있어서 리더십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특성’과 리더십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행동적 특징’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James M. Kouzes and Barry Z. Posner, *The Leadership Challenge 4th Edition* (San Francisco, CA : John Wiley & Sons, Inc, 2007), 3-44. 핵심 특성(essential characteristics)은 각 리더십 차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설명하며, 행동 특성(behavioral characteristics)은 핵심특성을 이루기 위해 각 리더십 차원에서 나타나야 할 리더십 행동들이다.

제 2 발표

당신은 그분의 예술가입니다

오 동 섭 박사
(미와십자가교회)

I. 들어가는 말

세계 도시화 속도는 세계의 인구증가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850년까지 지구상의 2% 정도만이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거주했고 1900년까지만 해도 약 5.5%의 인구만이 도시에 살았다.¹⁾ 그런데 1960년에 도시화 인구는 10억, 1985년에 20억 2002년에는 32억으로 증가되었다.²⁾ 2005년 이후에 도시화 인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35억을 넘어서게 되었다.³⁾ 2014년 UN의 세계 도시화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에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30% 정도 였는데 2014년에 전 세계의 인구의 54%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 66%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도시화는 각각 40%와 48%으로 대부분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데 비하여 북미지역은 2014년 기준 82%으로 가장 도시화되었고

1) J. John Palen, *The Urban World*, New York: McGraw-Hill, 1973, p.10.

2)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 New York: United Nation, 2014, p.7.

3) 위의 글.

두 번째로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은 80%이며 유럽은 73%이다. 또한 10년 안에 대부분의 지역이 더욱 더 도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2050년까지 각각 56%와 64%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34 억 명에서 향후 2050년에는 32억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가 도시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되었다. 이런 도시화 현상은 선교에 신중한 도전⁴⁾을 던져 주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왔다. 무엇보다 20세기의 ‘다종교, 다원화 상황 아래서의 복음’이라는 뚜렷한 인식의 변화 아래서 도시선교에 있어서 도시교회는 1) 비관적 도시선교의 태도, 2) 세속주의의 거센 도전들 3) 방관적 태도 4) 소비주의에 대한 무력한 대처 5) 문화적 획일성과 다양성의 선교에 대한 요구 6) 합리주의와 초월성의 도전 7) 연합사역의 결여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⁵⁾ 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도시교회는 물량주의, 성장 중심주의, 목회자의 권위실추, 교회 내 분쟁, 교회신뢰상실, 개교회주의, 지역과 배타적관계, 지역과 소통부재 등으로 한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해 선교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또한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서구 교회에서는 ‘소속 없는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 또는 ‘교회 밖 그리스도인(unchurched Christian)’으로 불리며 제도권 교회를 뛰쳐나온 성도들이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⁶⁾ 무엇보다 현대인들이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큰 위기이다.⁷⁾ 이러한 선교적, 교회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선교적 모색을 해야할 것이다.

1. 공간

‘공간’(space)이란 말은 매우 단순하면서 매력적인 용어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4) 개인일상생활의 커다란 영향, 도시 숫자와 규모의 영향력 확대, 반기독교 국가들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 점차 증가하는 비기독교 도시인, 도시빈민의 절대적 다수 등이다.

5) 찰스 반 앵겔, 박영환 옮김 『미래의 선교신학』,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4) 129-130

6)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5)

7) 2015년 한국갤럽의 ‘한국의 종교 실태’ 조사에서 ‘개인생활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8%,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서 관심이 없어서가 45%, 호감 가는 종교에 대한 질문에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가 46%이며 대부분 이러한 현상이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

영역 안에 살아간다. 거대하게 보면 우리는 우주(Universe)라는 공간에서 작은 은하계(Galaxy)라는 작은 공간 속에 태양계(Solar System)라는 더 작은 공간 속에 지구(earth)라는 더 작은 공간에서 그 보다 더 작은 한국의 특정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포함하며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움직인다. 특별히 인간은 이러한 공간속에서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또는 의미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레이마스(Greimas)와 쿠르테스(Courtes)의 기호학 사전에서 공간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간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역할 수행은 주체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주체는 공간을 구성하는 오브제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주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을 통하여 공간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말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공간의 핵심주체는 사람이고, 주체인 사람은 공간에 배치되는 다양한 오브제의 프로슈머로서 공간에서 의미작용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로에 한 소극장에서 연인이 연극공연을 보며 지낸 그 공간은 단지 한 공간을 넘어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간직한 장소로 의미작용을 하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기호학적 의미작용을 발생하여 그 속에 공간의 주체인 사람의 자기 인식에 새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 물리적인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철학과 인문학, 사회학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철학자 베르그송은 도시를 ‘이미지 집합체’라고 말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물들과 표지판, 카페와 영화관, 편의점, 노래방 등 수많은 이미지들이 모여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떠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러므로 도시는 기호들의 집합체이다. 도시 공간에는 수많은 기호들이 존재하며 계속해서 사회문화적인 의미, 역사, 이데올로기, 인간의 삶과 관계하면서 상징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면에

8) 그레이마스는 공간을 텍스트로 규정하여 공간텍스의 속성으로 4가지 차원을 조망합니다. 첫째 의미론적 차원에서 공간이 의미작용을 실행하는 주체에 의해 지각되는 장소적 언어로서 공간의 문법화가 가능하다. 둘째 지각차원에서 주체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기관이 작동하여 공간의 가독이 가능하다. 셋째 정서적 차원에서 주체는 감각을 매개로 공간의 쾌(快)와 불쾌(不快)의 공간의 기질적 감종을 나타낸다는 것, 넷째 가치론적 차원에서 주체의 공간사용에 있어서 삶의 공간, 지각의 공간, 느낌의 공간 등의 다양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 대학로에 있는 ‘학림다방’⁹⁾은 단순히 도로변에 있는 일반적인 다방이
라기보다는 그 안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회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낼 때 그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도시를
둘러보면 수많은 건물, 간판, 다양한 빌딩의 모양, 도로의 모양과 표지판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지 물리적인 형태라기보다는 마치 도시라는
한 권에 적혀있는 글(text)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보던 일상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현재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도시의 공간이 생산의 전진 기지에서 소
비의 시장을 전화되어 현대도시는 거대한 몰(Mall)형상화 되었다. 그러므
로 도시의 삶이 단순한 소비를 통한 일상적 삶의 도피나 삶의 파편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의 미학적 경험과 문화적 기억을 풍부하게 해
주어야 한다.¹⁰⁾

도시공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철학자이며 도시의 인상학자인 발
터 벤야민¹¹⁾은 도시 자체가 커다란 도서관이라고 말한다. 도시 지도와 도
시 이정표는 도시라는 도서관에서 텍스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비게이션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도시를 읽고, 이해하고, 느끼고, 비판하는
사람을 ‘도시의 산책자’라고 말하며 도시는 이런 산책자에게 단순한 삶의
공간을 넘어 도시의 수많은 흔적을 통해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 공간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9) 서울대 동숭동 캠퍼스가 자리하던 1956년에 처음 문을 연 학림다방은 서울대 문리대의
‘제25강의실’로 불리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각계각층 인사들의 청춘 이야기엔 학림다방
이 빠지지 않는다. 문단과 언론, 정계 등 사회 곳곳에 학림다방 단골손님들이 퍼져있다.
작은 장소지만 이곳에서 20대를 보낸 이들이 함께 성장하며 다른 노선을 걷고, 넓히고
설켜 근현대사를 만들었다. 학림다방을 1987년에 인수하여 현재까지 이어온 이충렬 사
장이 운영하고 있다.

10) 성석환,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문화선교” (서울: 두란노 목회신학총서 vol. 6, 2011).
91-94.

11) 발터 벤야민(Walter Bendix Schönflies Benjamin)은 유복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193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를 불안한 눈빛으로 살다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1940년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국경 마을 포르부(Port Bou)에서 음독자살한 비극적
운명의 지식인이다. 하지만 그의 지적·사상적 세계, 그리고 그가 남긴 글들은 1930~40
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성과물들이었지만, 21세기가 들어선 지금에서도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폭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시대 사상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나 슬라보이 지젝(Slavoj Zizek),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등이 모두 벤야민 사상에 빛을 지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최근 들어 그의 매
체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봇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요저서로 《아케이드
프로젝트》, 《일방통행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역사철학테제》 등이 있다.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2. 인 간

성경에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이 표현의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개의 명사가 사용되었다. 즉 땅 혹은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와 먼지 혹은 티끌을 의미하는 “아파르”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아다마”의 “아파르”로 만들어진 것이다. 땅의 티끌, 매우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인간이 흙의 먼지 혹은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였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 가라하셨으니”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 ‘남자’이다. 흙으로 빚은 인간을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숨’을 의미하고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한마디로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하여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 즉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할 것은 인간의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직접관련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다시 생명이 없는 티끌일 뿐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관계성을 갖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귄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관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믿음의 관계로 서로 사귄을 갖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나무를 세우시고 인간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정녕 죽으리라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어버릴 때 인간은 죽는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숨

이 빠져나간 하나의 티끌에 불과해 진다는 것이다. 사람 즉 아담이 진정으로 아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가치를 느끼고 생명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사귄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나누는 삶인 ‘코이노니아’의 삶이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해주는 용어로 ‘페리코레스시스’이다. 이것은 서로의 정체성이나 상호성을 잃지 않고 서로 내재하며, 서로 관통하는 역동적 관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과 무관하게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파편화되고 단절화된 인간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인 것처럼 관계적이라는 것이며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서로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

마틴 부버는 그의 명저 ‘나와 너’에서 사람은 하나의 ‘실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의 ‘대화적’ 실존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나’는 ‘너’가 있기에 진정한 ‘나’가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과 물건에는 만남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과 물건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당연히 있어야 할 ‘나’와 ‘너’의 ‘만남’은 없고 하나의 물건이 다루어지듯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만나다’라는 존재보다 ‘가진다’라는 소요가 있을 뿐이며 ‘너’는 ‘그것’으로 전락해 버린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진정한 만남으로서 나와 너를 상실한 나와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해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원한 너인 하나님을 망각하기에 진실한 만남을 찾을 수 없고 오직 나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우리는 영원한 너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사귄을 통해서 세상의 거래적인 관계를 사귄의 관계로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도시공간은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를 상실케 하여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서로를 소외시키게 만들며 도시인들은 도시 공간에 들어서서 주체로서 공간을 지각하지만 점점 더 자신을 상실하여 소외되고 만남의 갈증을 깊이 느끼게 되어

가고 있다.

3. 소비적 공간, 사권의 공간

대학로 거리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 속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160개가 넘는 소극장이라는 공간에서는 날마다 연극이나 뮤지컬의 형식으로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커피라는 소재로 한 공간은 대학로 거리마다 넘쳐나며 그 속에서 테이블이라는 작은 공간에 머문 사람들은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수다를 떨며 다른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은 식(食)공간이다. 식사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식공간을 찾아 들어간다. 대학로에 다른 종류의 공간들도 많지만 간단히 공연의 공간, 카페의 공간 그리고 식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 이 세 가지의 공간을 들어내면 대학로는 아마 황해될 것이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오밀조밀하게 구분되어진 크고 작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나누며, 삶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대학로에는 공연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와예술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그런데 이 많은 공간 중에서 진실한 만남과 사권을 보다는 상업적인 공간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획되어진 공연을 보고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쉼과 여유를 갖기보다는 마치 달콤한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며 더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인들에게 진정한 만남의 공간, 사권의 공간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몰(Mall)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 공간을 통해 진정한 선교적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창의적인 선교적 소통이 요청되었고 미와십자가교회는 그 요청에 매우 작은 몸부림으로 시작되었다.

4. 창의적 도시선교로 부르심

미와십자가교회는 2011년 9월부터 3가정과 3명의 청년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선교의 열정을 품고 3개월 간 개척준비로 예배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강의실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4일 창립예배를 통해 현재 대학로 스페이스아이(space I)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이다. 창립 7주년을 넘어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해주시고 이루신 작은 사역들을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한다.

미와십자가교회는 신앙적, 신학적, 목회적 고민과 급변하는 시대변화 속에 있는 한국목회 현장의 위기와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신대원 때부터 도시와 문화예술과 미디어를 통한 복음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신학교 졸업 후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교회성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윌로우크리교회, 새들백교회, 셀 교회, 제자훈련 등 국내외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세미나와 탐방, 분석과 목회적 적용을 통해 교회성장에 대한 기쁨과 함께 회의도 갖게 되었다.

그 후 선교적인 열정과 목회적인 고민 가운데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영국 옥스퍼드선교대학원(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M.A)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영국 개척교회를 출석하며 작지만 친밀한 교회 공동체와 새로운 지역전도의 경험을 하였다. 특별히 쇠퇴하는 영국교회와 달리 옥스퍼드에서 역동적이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St. Aldate Church와 St.Ebbe's Church를 탐방하며 다음세대에 대한 창의적 목회를 꿈꾸게 되었다. 유학 후 대전극동방송에서 홍보팀장으로 섬기며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 동안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던 중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회,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고 전통적인 목회 현장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목회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목회현장에서 지속적인 관심분야가 '선교', '도시', '문화예술', '영성'이라는 주제들을 찾게 되었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선교'에 대한 비전과 부르심으로 대학로에 '미와십자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5. 은혜로 변화하는 대학로

대학로는 예전부터 가르침을 숭배한다는 '숭교방(崇教坊)이라는 이름

으로 명륜동과 혜화동 일대에 학문의 터를 굳혀오다가 현대로 넘어오며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운동의 거리로 1985년 이후에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90년대로 들어서며 대학로는 소극장과 문화예술단체가 늘어나면서 상업공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2천 년대에 들어서며 대학로는 과거 순수함과 낭만보다는 문화의 상업화의 거리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대학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학문과 공연과 상업의 독특한 문화를 지닌 지역이다.

개혁을 결정한 후 좀 더 집중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목회방향에 맞는 교회이름과 로고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별다른 고민 없이 “미와십자가 교회”라고 짓게 되었다. 신대원 시절, 문화예술과 선교에 관한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문서선교의 비전을 품고 출판사명을 지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와 십자가’였다. 20여 년 전 마음에 두었던 이름이 개혁교회의 이름이 되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라 여겨졌다.



교회의 로고는 미와십자가 교회의 영어이름 ‘Beauty and Cross Church’의 이니셜 ‘BCC’로 기본 디자인을 구성했다. 첫 번째 ‘B’는 ‘Beauty’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두 번째 ‘C’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Christ’ 와 ‘Cross’를 뜻하며 세 번째 ‘C’는 교회가 처한 상황인 세상, 도시, 세속문화로서 ‘Context’를 뜻한다. 특히 로고 전체를 둘러싼 사각형 테두리는 창문(window)을 뜻하며 중앙에 보이는 창틀은 십자가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문화와 예술에 담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 세상과 도시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7월말 교회를 사임하고 이사를 했다. 마치 커다란 공터에 홀로 서있는 기분이었다. 단지 저 멀리 목적지만 있고 그곳까지 어떻게 가야할지 아무런 표지판도, 방법도 없이 서 있는 느낌이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선교’라는 부르심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위해 기도원 갔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책을 읽고, 생각들을 정리했다. 그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주신 것들, 성경구절, 읽은 책들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 생각나는 대로 메모지를

적어 빼곡히 붙였다. 그리고 다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전지에 옮겨 적으며 그림을 그리듯 거침없이 마인드맵을 만들어 나갔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아래와 같이 개척을 위한 미와십자가교회 기본적인 목회 비전을 작성하였다.

<미와십자가 목회비전>

미와십자가교회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이다. 이 열정은 첫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기초로 분주하고 경쟁적인 도시의 삶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거짓된 나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지역공동체와 진정한 만남을 갖는 열정이다. 둘째 사도행전 28장 30,31절에 바울이 ‘셋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친 것처럼 도시 구체적으로 대학로에서 셋방과 같은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임대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셋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쳐준 것처럼 도시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직면한 북한선교, 다문화선교, 다음세대, 세속문화의 문제들을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열정이다.

미와십자가교회는 신학적으로 교회성장중심이 아닌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 즉 대학로에 파송된 선교공동체임을 알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부름 받은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대학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시는 일에 경청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복음을 증거한다.

미와십자가교회는 문화와 예술에 민감한 교회로서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소중함을 삶에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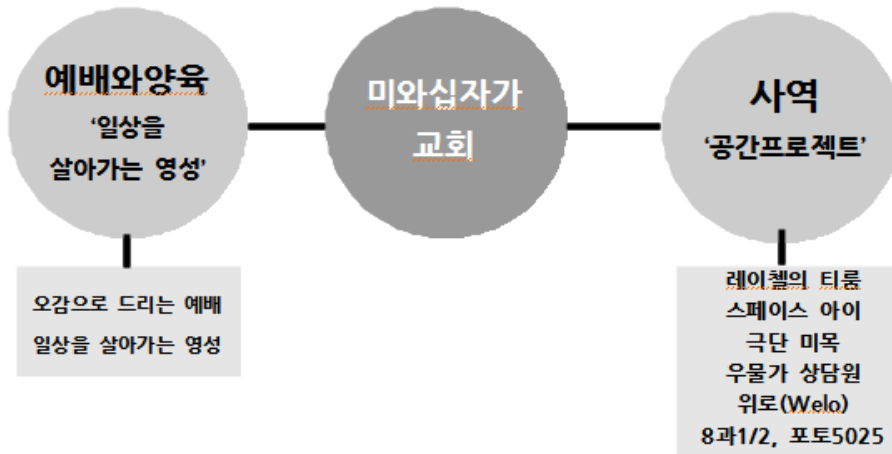
량을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한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상업주의에 물든 문화와 예술 속에 건강한 문화인들을 세운다 또한 하나님의 빛이 스며든 다양한 공연예술과 작품으로 긴장과 두려움, 삶의 무거운 무게에 눌린 도시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소망을 불어넣는 사역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회방향과 전략을 작성하자 좀 더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려졌다.

2011년 6월 말,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그해 6월에 개관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 캠퍼스에서 주일3시간 동안 유료로 빈 강의실 사용을 허락받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배처소를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학로 거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혜화’의 한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은혜 은 惠. 변화할 化. 그렇다! ‘은혜로 변화되는 거리!’ 마음에 확고한 소망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리! 학문과 정치, 상업과 세속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거리였다.

6. BCC 선교구조

미와십자가교회는 도시선교 공동체로서 교회내에 ‘예배와 양육’과 교회 외에 ‘사역’이라고 선교공동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내적으로 ‘예배’와 ‘양육’에만 집중하여 성도들을 훈련하여 일상의 삶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교회의 적으로는 대학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교전략을 통해 ‘공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7.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미와십자가교회의 주일 예배는 공동체 예배라고 부른다. 예배는 매주 오전 11시에 대학로 스페이스 아이에서 드린다. 공동체 예배는 교회력과 목회방향에 따라 매월 다른 주제로 드려진다. 예를 들면 2014년 8월 ‘고흐와 함께 떠나는 영혼의 순례’ 9월 ‘성령행동’ 10월 ‘시편 팔경’, 11월 ‘오직 믿음’ 2015년 1월 ‘소망의 시작’, 2-4월 사순절 기간 동안 ‘산 소망의 길’ 등이다. 설교는 예배 주제에 따라 본문이 정해진다. 매주 예배는 예전 적이며 예술적, 참여적, 성막중심의 색다른 형식으로 드려진다. 첫째 주는 그림과 함께하는 예배로 설교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설교를 하며 설교가 끝나면 그림이 완성된다, 둘째 주는 음악과 함께하는 예배로 찬양을 드리거나, 연주회, 내가 은혜 받은 찬양, 명곡 감상 등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 셋째 주는 영화와 함께하는 예배에서는 설교본문과 관련된 영화의 작가와 시대배경을 소개하고 성도들의 느낌 점을 나누고 말씀을 전한다. 넷째 주는 시와 함께하는 예배이다. 기존의 시를 낭송하거나 성도의 자작시를 발표하며 성도들과 느낌을 나누거나, 즉석해서 짧은 시를 성도들이 만들어 나누며 말씀을 전한다. 매주 예배 후에는 공동체식사가와 식탁별로 그날의 설교말씀을 나누는 ‘식탁공동체’가 있다.

예배순서는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드려진다. 예배 전에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촛불을 밝히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며 순서는 찬양과 침묵-예배로 부름- 찬양-사도신경-침묵의 고백-사죄선언-고백의 찬양-공동체기도-대표기도-봉헌-말씀

봉독-설교(1주 그림, 2주 음악, 3주 영화, 4주 시)-말씀묵상-성찬-평화의 인사-파송찬양-간구 및 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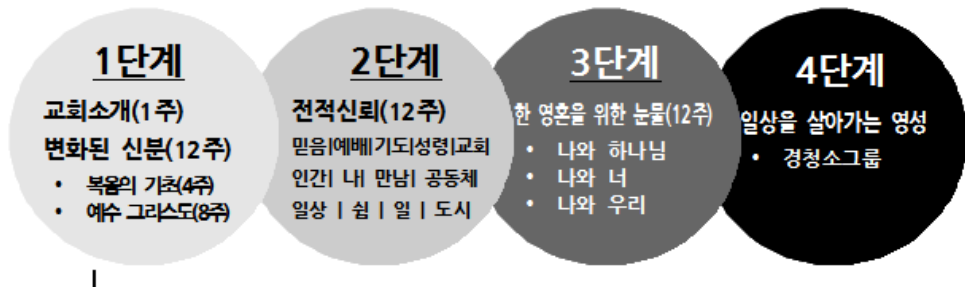
예배는 회중의 참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다. 공동체 기도는 통성기도가 아닌 인도자와 함께 작성된 공동체 기도문을 읽으면 함께 기도 드린다. 특별히 교인들은 예배 전에 촛불을 밝히며 이 촛불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밝혀지며 회중에게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인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한다. 예배의 전체적인 순서는 리마예식서를 바탕으로 성막을 모델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전통과 현대, 영성적인 분위기를 통해 이벤트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성이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관심을 가진다. 매주 성찬식이 있다.

특히, 해마다 8월에는 화가 한 명을 선정하여 그의 작품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 지금까지 2014년 ‘고호와 함께 떠나는 영혼의 순례’, 2015년 ‘세간의 화실에서 하나님을 보다’, 2016년 ‘루벤스, 일그러진 진주위의 성스러움’, 2017년 ‘이중섭에게 듣는 세 가지 이야기’, 2018년 ‘마르크 샤갈에게 듣는 성서이야기’로 해마다 진행되었다. 화가에 대한 작품과 단행본, 논문 등 자료등을 통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말씀과 접목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

8.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미와십자가교회 양육은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이란 주제로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육과정>



양육 1단계 : 교회소개(1주) | 변화된 신분(12주)- 복음의 기초, 예수 |
진적신뢰(12주) - 믿음과 삶

양육 2단계 : 한 영혼을 위한 눈물 - 일대일 양육 (독서와 나눔)

양육 3단계 :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 경청 소그룹 (말씀과 삶 나눔)

말씀훈련 : 열린성경공부 | 말씀캠프 | 원페이지 바이블

영성훈련 : 수도원기행 | 기도와 영성 | 중보기도학교

복음전파 : Jesus Talking | 문화소그룹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만남으로 교회소개와 목회방향에 대해 함께 나눈다. 이후에 1단계 기초양육으로 ‘변화된 신분’이란 주제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삶’이란 주제로 나누며 2단계는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란 주제로 일대일 양육으로 1년간 진행되는 기본적인 서적과 성경을 단계별에서 읽고 느낌점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고, 한 주에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3단계는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이란 주제로 소그룹으로 주간묵상을 통한 말씀 나눔과 삶 나눔으로 진행되는 ‘경청소그룹’이다. 교인들을 위한 양육 외에 열린 말씀묵상 그룹으로 타교인 또는 교회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주 중에 ‘열린 소그룹’ 있다. 교인들의 깊이 있는 말씀훈련을 위해 분기별로 ‘1일 말씀캠프’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로마서’, ‘요한계시록’, ‘산상수훈’, ‘빌립보서’, ‘사사기열전’, ‘복음 살리는 소리’, 등 이 진행되었고 년 2회 성경개관을 위한 ‘원페이지 성경’이 있다. 영성훈련을 위해 격월로 ‘수도원기행’이 1박 2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기도생활을 위해 년 4회 ‘기도와 영성’ 과 ‘중보기도학교’가 열린다. 분기별로 복음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Jesus Talking’이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문화예술이 직 업이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모임인 ‘문화소그룹’이 있다.

매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상묵상’이 있다. 기존의 큐티방식의 묵상이 아닌 바쁜 도시인 들을 위해 짧은 시간에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묵상집이다. 매일 시편 과 구약 또는 신약의 말씀을 읽고 잠시 침묵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일 세 번의 말씀문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한다. 아침 8시(조도), 오후 1시(대도), 오후 6시(만도)로 수도원에서 하루 세 번 묵상 과 기도를 하듯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한 절과 기도 한 줄의 문자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낸다.

연령별로 청년부 모임인 ‘아들람’과 청소년 모임인 ‘YAH’가 주일 공동체 예배 후에 진행되었다. 청년부 모임은 공동체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며 매월 첫째, 둘째 주는 말씀 나눔, 셋째 주는 영화나 공연 감상, 넷째 주는 매월 책 나눔이 있다. 청년부 여름과 겨울 수련회는 기존의 청년수련회형식과 달리 ‘유랑’이라는 문화 컨셉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서 오전에는 말씀 나눔, 오후에는 그 지역 문화탐방, 저녁에는 책 나눔과 기도회를 갖는다. 그동안 ‘안동유랑’, ‘제주유랑’, ‘춘천유랑’, ‘인도유랑’을 진행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명화와 함께하는 말씀 목상이 있다.

9. 도심 속 문화예술 사역

문화적인 행사로는 해마다 성탄절 전날이나 성금요일에는 명곡감상과 함께 말씀을 묵상한다. 예를 들어 헨델의 메시아 전곡감상, 바하의 마태수난곡 전곡 감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순절 5인 전시회’, ‘배진아 한 여름밤의 재즈, The Garden of Jazz’, ‘이여진전도사의 파파전시회’, 지역교회와 기관이 함께 하는 행사로 동숭교회와 서울대학병원이 함께 한 종교개혁 500주년 배재철 교수 콘서트 “말씀으로 노래하라”가 진행되었다. 매월 오색영화관으로 의미 있는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나누는 프로그램 있다. 매월 1회 도심의 문화공간을 견학하고 나누는 ‘도시 성곽 기행’으로 동묘기행, 창경궁 기행, 창덕궁 기행, 서촌기행 등이 진행되었다.

10. 도심 속 공간 프로젝트

미와십자가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공간프로젝트입니다. 대학로의 상업적인 공간들 속에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진실된 만남과 사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적인 표현대신 간접적으로 공간을 기획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간 프로젝트가 영국식 홍차 카페인 ‘레이첼의 티룸’(racheltearoom.com)이고 두 번째가 ‘스페이스 아이’(spacei.kr)이며 세 번째 공간프로젝트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공연사역인 극단 ‘미목’(mimok.org)이 있으며 네 번째 레이첼의 티룸에서 진행되는 상담사역을 주관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우물가상담원’ 있다. 이외에

교회 비전을 품고 교회 내 청년이 운영하는 영화-짜즈 카페인 '8과 1/2'과 엽서와 카드, 액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팬시 사업인 '위로'(Welo)와 사진 작가이며 교회 음악 미디어 담당 전도사가 사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포토 5025'(photo5025.com) 사역이 있다.

(1) 레이첼의 티룸

레이첼의 티룸은 성경의 우물가에서 만남과 변화가 있듯이 '우물가 사역'이라고 한다. 실내는 영국 가정집의 컨셉으로 마치 영국으로 여행 온 듯 한 느낌을 받도록 했다. 잠시 자신의 분주한 삶을 떠나 영국의 일반 가정집에서 편안하게 영국 전통 티를 마시는 경험과 함께 그 안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회복하며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현재 티룸은 공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손뜨개(크로셰)를 배우며 자신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형성을 통해 신앙적인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처나 아픔을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한다. 또한 티룸에서 일대일 양육을 하기도 하고 목회적인 상담이나 만남을 가진다. 말 그대로 티룸은 우물가에서 시원하게 물 한 잔을 마시며 한 숨을 돌리며 쉼을 얻는 장소가 되었다.

(2) 우물가 상담원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에 티룸에서 운영되는 예약제 상담으로 '우물가상담원'이다. 전문 상담사들에게 1시간 30분 ~ 2시간 개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물가 상담원은 개인 상담과 부부상담,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격월로 상담원들이 개인 상담 사례를 함께 나누는 '수퍼비전' 모임을 가진다.

(3) 스페이스 아이

'스페이스 아이'는 문화예술의 꿈을 가진 이들이 상상력을 충전하고 키우며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실험실로써 소규모 연극공연, 연극연습, 콘서트, 전시회, 세미나, 강연 및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대학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실험의 장이다. 현재 뮤지컬 퍼포먼스 팀인 '페이머스(famous)'와 함께 창의적인 공연을 진행중에 있다.

(4) 극단 미목

극단 ‘미목’ 공연은 도시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쉽고 일상, 소박한 행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도록 하며 시대에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공연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따뜻하고 유쾌하게 풀어나가려고 한다. 그동안 구약의 ‘룻기’를 현대화한 ‘서울루키’, 미혼모 문제를 다룬 ‘달빛연가’ 다문화 어린이 인형극 ‘아브라함’과 장애인인식개선 인형극으로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한 뮤지컬 Bus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으며 연극 아카데미로 아마추어반, 사모반과 퍼포먼스 테라피(performance therapy)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공간프로젝트로는 도시묵상원 ‘울림’, 독립영화관 카페 ‘오색영화관’, 카페 이중섭, ‘국수공방’ 있다. 문화와예술을 통해 도심 속의 소비적 공간을 사립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다.

11. 문화법인 ‘하트빌더’ 와 CAB

분주한 도시인들의 삶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정서적 풍요와 심리적 안정, 자아발견, 마음의 회복, 인성개발, 인간관계 개선 및 소통 등 도시인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가치 있고 풍요로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법인 ‘하트빌더(Heart Builder)’가 진행되고 있다. 공연예술 문화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도시문화와 소통에 대한 각종조사 및 연구사업, 문화예술을 위한 국내외 각종 매체홍보 및 간행물 출판,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후원 사업 및 수익 사업,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위해 사회적 공적인 재정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에 비전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CAB(Culture and Art Builder)가 준비 중에 있다.

II. 나가는 말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선교’라는 사명으로 ‘도시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했던 3년. 티룸이나 스페이스 아이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

들과 친숙해지며 때로는 목사로, 교수로, 대표로 불리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티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식당을 소개하거나, 스페이스 아이를 이용하는 문화 예술인들을 인근 식당이나 카페에 소개하며 서로 건강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극단 및 연출가, 배우, 음악인, 인근 직장인, 학생들이 스페이스를 이용하면서 서로 관심사나, 어려움 등을 나누며 이해하고 때로는 대관료를 할인해주거나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친밀한 문화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현재 교회사역에 팔목 할 만한 성장이나 많은 열매들이 있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다. 그저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시도였으며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소리가 높아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흐려지며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새로운 방법이 아닌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이제 더 많은 고민과 아픔과 헌신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에 담아 그 마음이 삶이 되고 사역이 되어 이곳에 길을 내고 힘차게 흘러가길 소망한다. 미와십자가교회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길이 아닌 내려가는 길을 걸으며 때로는 힘겹겠지만 산 소망으로 뚜벅 뚜벅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미와십자가교회 홈페이지 www.beautyncross.net

오동섭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M.Div) 계명대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Th. M.)하였으며 영국 옥스포드 선교대학원(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M.A)하였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전공(Th.D) 하였다. 포항 기쁨의교회, 서울서소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으며, 영국 유학 후 대전 극동방송에서 홍보팀장으로 사역하였고, 동안교회에서 교구목사와 청년담당 목사로 사역하면서 방송,전도전략,홍보,기획,문화,세계선교사역을 섬기며 훈련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목회자로서 그분을 위한 새로운 작품을 그리는 것으로 이루게 하시고 오랫동안 품게 하셨던 문서선교와 도시선교의 비전을 대학로에서 미와십자가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현재 미와십자가교회 위임목사이며 스페이스 아이 대표와 극단 미목의 기획 제작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사역 하트빌더 대표를 맡고 있다.

논 찬 1

“당신은 그분의 예술가입니다”에 대한 논찬

유 재 원 박사

(주안장로교회 목사)

1. 성막의 예배신학과 이머징 예배의 특징이 어우러진 예술적 예배를 지향)

2011년 9월 첫째 주일에 창립한 미와십자가교회(Beauty & Cross Church, 이하 BCC)는 당시 몇 개월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분위기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심한 준비가 인상적이었다. 이와는 달리 예배 ‘공간’은 교회의 모토와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천정에는 긴 형광등만 배열되어있고 테이블형 책상과 의자만이 놓여있는 건조한 강의실 그 자체였다.²⁾ 앞에는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었고, 담임목사는 편안한 세미 정장 차림으로 교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예배 전 교제를 나누는 여유있는 분위기 또한 인상적이었다.

공동체 예배는 사도신경-예배로 부름(침묵으로, CCM)-찬양(떼제)-침묵의 고백-사죄의 선언-고백의 찬양(CCM)-공동체 기도-대표기도-말씀교독(개역개정)-간증과 연주-말씀듣기-결단의 기도-축복과 소식/ 공동체 식사의 순서에 따라 드러진다. 정면에 그 달의 주제가 그려진 현수막이 있고, PPT를 통해 찬양, 기도, 성경말씀이 전해진다.

예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침묵과 고백과 사죄의 선언 사이

1) 유재원, “우리 교회에 맞는 예배 만들기: 미와십자가교회”, 『목회와 신학』 (2012. 4)을 참고.

2) 이후로 성균관대 앞쪽 레이첼 티룸이 있는 장소로 옮겨 예배를 드리다가 현재 <스페이스 i> 있는 건물 지하로 옮긴 다음 지금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데, 이머징 예배의 특징이 가장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침묵의 고백을 드린 회중들이 한 명씩 강대상 앞의 테이블로 나가서 초를 하나씩 들고 불을 붙인 다음 약속된 장소에 놓고 들어가서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목회자에 의한 사죄의 선언이 행히지며, 이때 회중들이 놓고 들어간 초들은 중간에 끄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타오르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고백한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으로 온전하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마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예배는 담임목사의 리더십과, 목회적 의도를 기반으로 기획, 실행되고 있다.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세대통합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후에 연령별 소그룹 모임을 가진다. 오동섭 목사는 BCC 개척 전에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정반대 유형인 온누리교회 스타일의 St. Aldate 교회와 소망교회 스타일의 St. Ebbe's 교회를 조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들과 이머징 교회들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이머징 예배의 유형과 특징들을 익혀나갔다. 특히 지금은 사임했지만 당시 룩 벨 목사가 담임했던 Mars Hill Bible Church를 보고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로 그 교회를 미와십자가교회 개척할 때 예배당 디자인과 기획의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드리는 예배 형태는 창립후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 끝에 정착된 것이다. 예배의 기본 구조는 구약의 성막예배를 따른 것이며, 가능한 미디어 사용은 절제하고 아날로그식의 접근을 지향한다. 또한 회중의 참여 확대에 노력하며 전통과 현대의 비율을 6:4 정도로 맞추려하고 있다. 예배의 기본 방향과 주제는 “설교”를 중심으로 잡아나가고 있으며, 첫번째 주일은 그림과 함께 드리는 예배(담임목사), 두 번째 주일은 음악과 함께 드리는 예배(장르 불문, 탈북음악가까지 폭넓은 스펙트럼), 세 번째 주일은 드라마와 함께 드리는 예배(교인참여), 네 번째 주일은 시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특별 간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악, 드라마, 시가 설교 도입부에 사용되고, 그림이 설교와 함께 시작돼 마침과 동시에 완성된다.

공동체 기도는 담임목사가 인도하는데, 담임목사의 기도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회중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로 화답한다. 처음에는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금의 형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세례는 1년에 2번(부활절, 추수감사절)에 집

레하고, 그때만 흰색 가운을 입고 집례 한다.

전반적으로 예배 분위기는 LA의 모자이크교회 분위기와 매우 유사하다. 담임목사가 직접 탐방하지 못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방문한 다른 분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마도 담임목사가 예술에 조예가 깊고, 개척교회라는 선입견을 깨뜨리는 세련되고 깔끔한 정보와 용품, 리플릿과 교회 명패가 그런 인상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 BCC 창립 이념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창의적인 도시선교의 기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타 교회와는 태생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BCC는 담임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항상 대화하는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정리하자면, BCC교회 예배는 성막예배신학을 기본으로 하되 회중 중심의 예배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고, 이머징 예배의 특징을 가진 예술적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예술성을 가지고 본격적인 도입을 시도하고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다.

2. 토론을 위한 질문

- 1) 로버트 웨버의 ancient-future 예배 모델로서의 가능성 타진
- 2) 아름다움의 창의적 재해석과 실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예술”부분
- 3) 예술적인 활동이 어떻게 예배로 성화되는가?
- 4) 세대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교회 혹은 가정예배와의 연결점은?
- 5) 설교의 형식과 다양한 collaboration에 대한 평가³⁾

3) 예를 들어 그 달의 전체 주제를 정하면, 각 주일별로 주제를 선정해 모든 예배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기획하고 이끌어 간다. “산 소망 안에서 굳게 서라”(벧전 4:12-5:14)이면, 첫째 주는 ‘기쁨으로 굳게 서라’, 둘째 주는 ‘증인으로 굳게 서라’, 셋째 주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넷째 주는 ‘은혜 안에 굳게 서라’로 하고, 둘째 주에는 음악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탈북바이올리니스트의 간증과 연주로 설교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논 찬 2

“당신은 그분의 예술가입니다”에 대한 논찬

손 문 박사

(연세대학교)

저자는 미와십자가교회를 통해, 도시화 그리고 세속화의 사회 변화에 적절한 목회 비전과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미와십자가교회의 목회비전과 선교구조는 세속화된 도시인들의 삶을 위한 평안과 위로의 공간을 지향한다. 네덜란드의 실천신학자 Kees de Groot는 그의 최근 저서, *The Liquidation of the Church* (2018)에서 최근의 세속화 개념을 분석하는 해석의 틀로 법학과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리퀴데이션 개념을 사용한다. 리퀴데이션이라는 개념은 회사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건물, 재화, 기계를 모두 현금화하는 법적 그리고 경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리퀴데이션이라는 개념 속에는 소유권의 불연속성과 상품의 연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데 후르트(de Groot)는 이러한 교회의 리퀴데이션을 교회의 탈제도화로 인한 불연속성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조직의 연속성으로 설명한다. 적어도 토론자는 저자의 미와십자가교회가 이와 같은 세속화와 도시화로 인한 리퀴데이션을 매우 적절하게 반영한 선교모델로 평가하고 싶다.

토론자는 미와십자가교회가 페리코레스스의 삼위일체적 변형을 예술의 심미적 탐색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은 대형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미와십자가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기이하면서도 놀랍다는 거의 경의에 가까운 찬사를 받기에 마땅하다. 토론자는 이러한 예술적 심미성이 페리코레스스적 역동성을 넘어서서, Deification으로까지 향해하는 여정으로의 안내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도 동

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콘화의 신성이 서방교회의 페리코레스시스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동방교회의 신학자 John Meyendorff는 그의 주저, *Byzantine Theology* (1983)에서 “성화는 신적인 지식의 표현이며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화가와 대화를 나누는 미와십자가교회의 목회실천은 그 자체가 기록함의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매우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예술 그리고 문화와 소통하는 실천의 장에서 우리는 매우 작은 목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미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세계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나라가 가난과 폭력이 일상이 되는 도시 산업사회의 거주민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미국 듀크대학교의 Joseph Barndt는 그의 주저, *Becoming an Anti-Racist Church* (2011) 문화에 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Racism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적어도 도시 중산층에 평준화된 문화만이 고려된다면, 이미 그 자체의 “문화적 인종주의”(cultural racism)의 표출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주도적인 문화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특수성의 관점에서 고려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길 소망하시는 진정한 목회의 실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 3 발표

콘서트를 선물하다 - Dream Life Classic

유 정 현 박사

(드림라이프 대표)

어디든 찾아가서 콘서트를 선물하는 <Dream Life Classic>은 성악을 취미로 배웠던 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타고난 목소리가 너무 훌륭했던 제자였는데,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어려서부터 바이올린도 배워서 아마추어 연주자로서는 손색이 없는 실력가였다. 그런 배경이라 그런지 평소 음악회를 하면 늘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던 친구였는데, 그가 대기업에 들어간 이후로 그 응원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업무로 인해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고, 그냥 시간 자체가 없어서였다. 그래서 그 때 생각해낸 것이 바로 <Dream Life Classic>의 “오피스 콘서트”이다.

보통 문화 소외자는 빈곤층이나 노인등을 말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를 생각해보니 좋은 직장에 다니고 밤샘 작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문화 소외자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번뜩 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혹은 회사 로비에서 일에 쪼든 문화 소외자인 직장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여는 감동의 메시지와 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하는 후배 음악인들과 함께 콘서트를 선물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는 컨셉이다.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류 최고의 문화사역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성육신의 원리라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문화적인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콘서트를 선물하면서 참 보람 있는 것은 관객들이 처음엔 우울한 표정이었는데, 끝날 때쯤이면 얼굴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행복이 얼굴에 그려져 있다. 음악에는 잠시나마 우울증을 치료하는 묘약이 있음을 현장에서 경험하곤 한다.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세계 1위, 2012년 통계로 하루 자살자 수가 42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50대 직장인의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어떤 기업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어 좋은 효과를 얻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치유가 이뤄지지 않는다. 어느 순간 자신은 돈만 버는 기계로 느껴지고, 자녀들과의 대화는 단절 된지 이미 오래이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음악과 예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드림라이프는 사업 자체가 소명이요 사명이다.

나는 먼저 회사에 방문하여 직원들의 남녀 비율과 연령대를 알아본다. 왜냐하면 여직원이 많을 경우 남자 성악가를 더 데려가고, 남자 직원이 많을 경우 당연히 여성 소프라노를 더 많이 데려간다. 경험상 그 비율을 맞추면 훨씬 더 집중도나 효과 면에서 좋고, 노래를 하는 우리 입장에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만큼 더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메시지이다. 지난 13년간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며 직접 오프닝 멘트를 쓴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 대상이 아닌 곳이기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기도하며 멘트를 준비한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을 잘 나타내는 좋은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특별히 노래 안에 찬양을 편곡해서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뮤지컬 “캣츠”에 나오는 Memory (메모리)를 부르는데, 중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영어로 부른다. 그리고 다시 “캣츠”의 Memory로 잘 마무리한다. 나와 우리 팀은 이 노래가 흐를 때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한다. 한 영혼이라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면서 말이다.

콘서트의 MC 멘트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우울증을 3번 앓았던 경험이다.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얼굴만 봐도 대략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가 대략 파악이 되기 때문이고, 그에 맞춰 선곡을 하고 매 순간 순간마다 메시지를 바꾸기도 한다. 예전에 우울증 치유 음악회를 17회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드림라이프가 하는 콘서트는 자연스럽게 ‘힐링 콘서트’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Dream Life Classic>은 이렇게 회사에서 받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문화 선교비로 책정하여 어려운 시골교회나 재래시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재능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음악가들에게는 회사에서 하는 오피스 콘서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출연료를 책정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재능 나눔이 이뤄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 예술인들에게 일정한 수익이 계속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더 지혜롭게 잘 경영해야 할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오신 어떤 회장님을 전도하기 위해 그분의 집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열었던 일이다.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진행을 했다.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랜 기간 중보기도를 해 오신 20여분을 초대해서 맛난 저녁을 먹고, 콘서트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결신 기도까지 하셨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 회장님은 그 날 이후 꾸준히 성경공부도 하시고,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몇 년 후,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 기뻐고, 보람을 느꼈다.

“삶이 노래라면 사랑은 바로 그 음악이다”

20여 년 전 군대에서 우연히 읽었던 책에서 본 작자 미상의 이 글귀 하나가 <Dream Life Classic>의 큰 에너지가 되고 있다. 가뜩이나 더욱 우울해진 이 땅에 콘서트 선물을 통해 수많은 영혼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요 <Dream Life Classic>이라는 작은 회사의 존재 이유이다. 설교든 교육이든, 전도를 위한 문화 행사든 모든 목회의 영

역에서 복음이 적절한 문화의 옷을 입을 때, 비로서 소통을 뛰어 넘는 공감
감이 이루어져 목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다.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땅에 내려주신
천국의 유일한 예술,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이 땅의 유일
한 예술이다.”

- 찰스 랜던, (Charles Landon) -

유정현

- 드림라이프 대표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 서울모테트 합창단 홍보이사
- 부암동 하우스 콘서트 Art For Life 음악감독 역임

-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 기획
- 우울증 치유음악회 17회 공연
- 드림라이프 오피스 콘서트
- 인천시 교육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연수원, 평생학습교육
원, 을곡연수원,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인문학 상상여행 강의 콘
서트> 50여회
- 극동방송 FM "질그릇에 담긴 사랑" 라디오 DJ (2003-2005)
- 극동방송 인터넷 방송 "믿음의 기업" MC
- 극동방송 FM "유정현의 내 영혼의 클래식" 라디오 DJ
(2006-2016.4)
- CBS 라디오 "주일 아침의 명성가" 라디오 게스트
- 다수의 하우스 콘서트 진행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 및 강연, 사
회자로 활동

논 찬 1

“콘서트를 선물하다 - Dream Life Classic” 에 대한 논찬

황 정 은 박사

(성결대학교 / 상담학)

먼저 훌륭한 콘서트 선물을 주신 드림라이프 유정현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은 사람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악을 건강유지 및 증진에 이용한다.

Kenneth E. Bruscia는 음악치료를 내담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관계들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치료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 한 두 번에 그치는 치료의 형태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시행해가는 과정이라 한다. 즉, 치료계획이 설정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음악이나 음악 활동이 있어야 하며, 음악치료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하며, 치료 목적이 분명하게 규명되고 설정되어야 한다.²⁾

1) Kenneth E. Bruscia, *De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 역,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2003), 15.

2) Bruscia, *Defining Music Therapy*, 17.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복원(rehabilitation), 유지(maintenance)하며 향상(habilitation)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미국 음악치료 학회에서 정의하였다.³⁾ 이처럼 음악치료는 음악 또는 음악적 요소를 촉진하는 치료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측면에서 볼 때 음악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악보를 읽고,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서 귀, 입, 눈, 손, 발 등 많은 신경조직의 통로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음악을 사용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다.⁴⁾ 음악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과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또한, 악기를 사용한 즉흥연주는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정서 상태를 탐색하고, 감정을 해소하며 집단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도우며 신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 자아와 타인의 인식, 대인관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접근법이다.⁵⁾

‘음악치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치료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치료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셋째, 훈련된 음악치료사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한다. 넷째, 음악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⁶⁾ 사람들이 음악치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음악치료가 일반인이나 여러 전문인에게 아직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라는 사실과 음악치료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 궁금증 때문이다.

Irvin D. Yalom은 효과적인 치료집단이란 집단구성원이 서로 자유롭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각자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특히 집단 안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 그 힘은 더욱 극대화된다고 한다.⁷⁾

성경 속에 나타난 음악치료의 효과는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난다. 찬

3) 최병철,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2015), 14.

4) 김동주, 박금주 공저, 『음악치료의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아카데미, 2012), 13.

5) 최병철, 『음악치료학』, 15-19.

6) 김동주, 박금주 공저, 『음악치료의 방법과 적용』, 24.

7) Irvin D. Yalom & Molyn Leszcz,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혜림, 장정숙 공역,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2008), 76-89.

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전적으로 드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심적 장애자에게 음악적 기법을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음악의 신경증적인 우울상태와 심인성 질환에 음악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효과를 입증한 상경의 대표적 인물이다.⁸⁾ 음악으로 치유를 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다윗이 음악으로 낮게 한 경우(삼상 16:14-23), 다윗 왕과 언약케(역사 15장)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삼상 16:14-23에서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본문에 따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이 연주되었고 다윗이 음악을 연주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하프 즉, 수금을 연주했는데 수금은 화음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연주하는 악기이다. 다윗의 음악이 사울왕의 번뇌를 두 가지 면에서 구속하였다. 첫째, 사울은 일시적인 영적구속을 받았다. 즉, 다윗의 음악의 요소가 악한 영이 사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만든 것이다. 둘째, 사울왕의 뇌를 낮게 한 것은 한편으로 육체적으로 구원한 것이다. 사울은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음을 얻었다.⁹⁾

구약성경의 내용가운데 수많은 음악관련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음악가, 악기, 음악작품에 대한 언급은 풍부하고도 다양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해 음악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음악치유가 흔

8) 박정희, 이드보라, “독거노인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트로트와 민요를 이용한 노래회 상음악치료의 비교 연구,” 『노인복지 연구』 61 (2013): 328.

9) 유명복, “음악의 치유기능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40 (2016): 147-48.

히 종교, 특히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음악치유는 보통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 불안을 완화하는 치유로 음악이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둘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치유로 음악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이완시켜준다. 셋째, 환각적 음악 치유로 음악이 악령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 준다. 넷째, 병리학적인 음악치유로 음악이 상실의 슬픔이나 무거운 짐을 완화시켜준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여호와 라파 등 치유의 하나님으로 불렀다.

요즘은 지역사회에서도 ‘찾아가는 상담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돕고 있는데, 드림 라이프 또한 찾아가서 콘서트를 선물하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음악치료는 음악을 매개로 구조화를 통해 역동과 해소를 불러오며 치료를 가져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드림 라이프는 음악치료로 간주되기 위한 다섯 가지요소를 갖추어 연주를 통해 치유를 가져오며, 팀원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로 사역하는 모습이 높이 평가되어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대화되어지는 음악의 구조를 사용하였으면 한다. (예를 들어 대중에게 비트를 주어 참여하게 하거나, 웨이크나 드럼을 일부에게만 주어도 큰 역동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다시한번, 음악으로 대중에게 공감과 복음을 전하는 드림라이프의 유정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10) Yemi Olaniyan, "Music as a facilitator for healing: psychotherapy and Psychotherapeutic Portrayals in Literature," *An International Journal* 21-3 (2013): 98.

11) Kelebogile E. Meremi, "Traditional African concept of sound/motion: its implication for and application in music therapy,"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7 (1997): 32.

논 찬 2

“콘서트를 선물하다 - Dream Life Classic” 에 대한 논찬

김 경 수 박사

(강남대학교)

발표자인 유정현 대표는 찾아가는 콘서트 <Dream Life Classic>로 소외되고 일상에서 지친 이들을 위하여 음악으로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닫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리고 치유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사역을 한 것처럼 저자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타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 음악의 재능으로 타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논찬자는 발표자의 삶의 경험이 담긴 짧은 글에서 음악 치료적 접근으로 다소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몇 가지 논평을 하고자 한다.

음악치료란 무엇인가? 전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여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할 뿐 아니라 유지 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음악의 예술적 분야에 치료적 개입으로 다양한 복합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치료란 ‘therapy’로 그리스의 어원 ‘therapeia’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참석하다’, ‘돕다’, ‘취급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음악치료는 음악이라는 도구로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는 소리로 전달되는 음악 뿐 아니라 개인의 정서와 그 속에 내포된 대화를 통해 상호교류의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기에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초점에 맞추어야 하며,

치료적 방법으로는 감상과 즉흥적 연주, 작곡, 동작 표현 등 다양한 경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음악치료자는 즉흥연주나 음악적 교류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정서적 친밀함과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그 치료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게 된다.

음악치료의 임상에서 상호적인 음악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언어적 교류 또한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기분이 어떠한지? 지난 상담이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주제로 시작할 것인지? 음악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반응들을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언어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치료에서 심리적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준에 비추어 치료적 개입을 들 수 있다. 먼저 음악적 경험만을 사용하는 심리치료로서의 음악으로 음악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음악적 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기분을 다양한 악기를 통해 표현해 보게 하거나 혹은 현재 떠오르는 노래에 대한 질문과 감상으로 여러 가지 음악적 경험의 탐구를 함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무제해결을 시도해 본다. 두 번째로 음악중심의 심리치료로 임상가들에 의해 적합한 음악을 선곡하거나 프로그램화된 고전음악을 들으며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1970년대 Helen Bonny 박사에 의해 고안된 GIM(Guided Imagery and Music)라 불리며, 음악이 지닌 다양한 요소(가락, 화성, 리듬, 음색, 셈여림)을 이용하여 정서의 흐름과 움직임에 자극할 수 있고 음악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이완하여 심상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MI(Music and Imagery)는 치료사의 안내가 제시되지 않은 침묵 가운데 내담자가 음악을 감상하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음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심상의 경험에 대해 치료사와 토의 하게 된다. 세 번째로 심리치료로서의 음악인데 이는 언어와 음악을 필요에 따라 서로 동등하게 적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악기로 표현하게 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언어적 심리치료가 있는데 이는 언어적 심리치료가 주가 되고 음악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소극적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듣게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또한 음악은 사람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근육 운동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완 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극적인 음악으로 싱코페이션, 엑센트, 급격한 조성의 변화가 많은 음악을 들 수 있고 레가토적인 멜로디 중심의 음악이나 조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관계조로 구성된 음악은 심리적 안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들은 대개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정서수정이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인식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러한 자아인식으로 하여금 자기표현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정신치료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개인의 장애를 넘어 새로운 사회교류로 이어 질 수 있다.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우울한 표정의 관객들이 행복한 얼굴로 변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음악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묘약이 있음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대상의 우울증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선곡을 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근거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와 우울한 정서적 기분과 우울증에 관하여 의학적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의도적 선곡을 하는 것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병리의 증상은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의학적인 이론이 기반이 되어 임상적 상담과 치료적인 개입 등을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된다. 음악이 개인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소 할 수 있으며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발전시키고 창의력과 인지의 강화와 영성의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통증완화와 긴장이완에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치료에서의 음악은 인간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투사(projection)나 자유연상(free association)의 도구가 되어 내면을 반영하고 담아주는 역할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자 사이의 음악적 의사소통을 위해 치료자는 매 순간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수준에 맞추어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한 즉흥적 연주할 수 있는 창조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어떤 기업에서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좋은 효과를 얻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저자가 하고 있는 콘서트가 본질적인 심리 내면의 핵심감정을 치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신분석적 해석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은 무의식에서 전의식, 의식의 수준에 따른다. 무의식은 개인 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기억과 본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신은 무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포화된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의식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억압이라는 정신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해석과 통찰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또한 대상관계학파에서는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음악 심리치료는 치료자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공유하는 음악의 경험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가고 감상하는 음악을 통해 두 사람의 음악적 만남은 전이와 투사적 동일시, 역전이의 구조로 상호교류하게 된다. 그렇기에 치료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발표자가 치료적 접근법으로 GIM을 사용하고 있다. ‘캣츠’의 메모리(memory)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영어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곡들을 관객들(클라이언트)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메모리의 가사는 희망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적 관점에서 저자는 멜로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캣츠라는 뮤지컬을 안다는 가정하에 다 이해할 것을 전제로 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음악은 인간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치료자(연주자)가 선곡한 노래를 함께 들으며 심리적 이슈를 탐구하고 노래를 통해 감정을 동일화(identification)하고 공감(empathy)하며 투사(projection)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와 노래의 의미를 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래가 치료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가 고려되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선호도와 특성을 짐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주자에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듣는 이에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캣츠의 메모리에서 가사의 내용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에겐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일 수 있다. 또한 어떤 이에겐 감미로운 멜로디이지만, 어떤 이에겐 우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이언트와 곡에 대한 의미를 토의해야 할 것이다.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감상만으로도 클라이언트의 정서를 자극할 수는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깊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노래 잘 하는 사람이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었고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멜로디 보다는 가사의 전달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발표자의 음

악선교가 보다 더 효과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의 이론이 가미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증상에 대한 지식, 임상과 전문적인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체계를 가져야 한다.

발표자는 드림 콘서트를 통하여 소외되고 아픈 이들의 위로자로서 치료적 열매와 선교의 결실을 이어가고 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발표자에게 찬사를 보낸다.

추억 Memory

뮤지컬 <캣츠> 거지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노래

임영실 역사

Freely

A.L.Webber 작곡

mp *C* *A m*

Mid - night, - Not a sound from the pave - ment, - Has the moon lost her
 한 밤 익 - 고 요 한 거 리 위 에 - 달 은 추 억 을 상
 추 익 - 달 빛 흠 로 받 으 며 - 옛 일 을 회 상

F *E m*

me - mory? - She is smil - ing a - lone In the
 일 고 - 홀 로 미 소 짓 네 등 불
 하 네 - 아 름 답 던 시 절 결

D m *A m*

lamp - light the wi - thered leaves col - lect at my feat. And the
 속 에 낙 엽 은 발 아 래 쌓 이 고 바 람
 했 던 그 날 의 아 름 다 운 추 억 내 맘

G *F/G* *C* *E mp* *D m* *E m*

wind - be gins to moan - Ev - cry street lamp seems to beat - a
 은 - 구 슬 퍼 라 - 가 로 등 불 운 명 의 - 경
 속 에 - - 떠 을 라 -

11 *Em* *C* *D* *G* *mp* *Em* *A m*
 fa - tal is - tic war - ning Some one mut - ters - and a
 고 를 보 - 내 는 듯 누 군 가 속 - 삭 여

11
 루 - 루 - 루 루

14 *D7 cresc.* *G M7* *Em* *A7* *D* *poco rit.*
 street lamp gut - ters - and soon it will be morn - ing -
 불 빛 호 르 - 고 새 날 은 오 리 라 -

14 *cresc.* *poco rit.*
 루 루 루 루 루 라 라 라

17 *f* *c* *a tempo* *A m*
 Day - light - I must wait for the sun - rise, - I must think of a
 태 양 - 빛 나 기 바 라 면 서 - 새 삶 을 생 각

17 *f* *a tempo*

19 *F* *Em* *D m*
 new life - And I mustn't give in When the dawn comes to-night will be a
 하 네 - 포 기 하지 않 아 새 벽 오 먼 밤 은 추 억 에

19

22 *A m* *G* *F/G* *C*
 me-mo - ry too And a new day will, be - gin
 물 - 히 고 새 날 은 시 작 되 리

22

한국실천신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천신학회(KSPH=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 신학의 학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학문분야)

본 학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한다(예배와 설교, 목회사역, 상담치료, 전도와 선교, 기독교교육, 디아코니아, 영성, 종교사회, 교회성장, 교회행정, 기독교문화, 예배음악, 교회건축,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관혼상제와 성례전, 리더십-멘토링 등).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회원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의 자격- 학자 및 목회자로서 실천신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거나 관련 영역에서 다년간 전문경험을 쌓은 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의무-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성실히 참여한다(은퇴교수는 연회비 면제).

제 6 조 (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구성, 선출, 임기)

1. 임원회는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하되 임원들의 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승계를 원칙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 총무를 역임한자 및 분과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신입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단 이외의 임원은 재임이 가능하다.
4. 학회의 감사는 임원 역임자(분과장 포함) 중에서 2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5.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회계와 부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학술분과회의 구성과 분과회장 선출)

1.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협력학회 또는 전공영역으로 학제간대화교회를 섬기려는 본 학회의 기본목적에 찬성하고 학술적 독립성과 충분한 회원수를 확보해야 한다.
2. 신규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검증을 받아 임원회 건의로 이사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한다.
3. 학술분과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각 학술분과회 소속회원들의 결정에 따른다. 단 신입 학술분과회장은 변동사항을 학회장에게 공지해야 한다.
4. 학술분과회장은 임원회 및 타 학술분과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한다. 분과회장은 학회장이 요청할 경우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이사회)

본 학회의 사업, 발전, 및 후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사, 상임이사, 본 학회 회장, 분과에서 추천하는 1인, 도합 15인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선임이사가 승계하며, 선임이사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는 직전회장이 승계한다.

제9조(고문단)

본 학회의 진로와 자문 그리고 후원을 위하여 은퇴한 원로 학자들을 고문단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제한)

현역에서 은퇴한 자는 임원, 이사, 감사 및 편집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 11 조 (연구위원회)

1. 본 학회는 비상설기구로 특별과제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관련 학술분과회장들과의 협의로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간사 등을 위임하여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에 대해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존폐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사업과 재정

제 12 조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발표: 연 4회로 하되 2월(학제간대화), 6월(전공별), 9월(목회) 10월(공동학회)로 한다. 단 국제학술발표회는 예외로 한다.
2.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학술답사 및 공동연구, 교재발간.
4. 각 대학 및 교회 순회강연.

제 13 조 (학술연구지 출간)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출간한다.

1.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20), 겨울(11.30)년 5회로 한다.
4.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입회장과 의논하여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편집에 관한 사안을 관장한다. 편집재정은 편집위원회 회계가 맡아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한다.

제 14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초순 정기학술대회 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고문 및 이사회)

본 학회의 고문 및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 발전과 사업을 논의 한다.

제 17 조 (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개정하며, 효력은 개정 즉시 발효한다. 단, 각종 규정 등은 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18 조 (회칙의 시행)

본 학회 회칙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1996년 10월 25일 부로 한다.

1. 회칙 보완 수정 2007년 10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회칙 보완 수정은 2009년 2월 6일 임시총회 결의와 2010년 2월 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회칙 보완 수정은 2013년 2월 2일 제1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4. 회칙 보완 수정은 2014년 2월 7일 제19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5. 회칙 보완 수정은 2015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6. 회칙 보완 수정은 2016년 2월 12일 제21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7. 회칙 보완 수정은 2017년 2월 11일 제22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8. 회칙 보완 수정은 2018년 5월 19일 제23회 1차 임시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한국 실천신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입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편집자문을 위해 전임회장 중에서 편집고문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발행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편집관련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임원회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이라 칭한다.

제 7 조 (발행)

본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8 조 (투고)

본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9 조 (심사)

본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된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10 조 (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정 2015년 2월 14일 회칙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11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발행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키 위해 학술지를 발행하며 그 명칭을 「신학과 실천」으로 한다.

제 2 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회원 중에서 전공, 소속, 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8명 내외로 위

임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4 조 (선출 및 위임)

편집위원의 위임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입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

본 학술지는 연 5회 발간하며 매년 1월30일에 마감하여 2월28일에 봄 호 발행, 4월30일에 마감하여 5월30일에 여름 호 발행, 6월30일에 마감하여 7월30일에 외국어 호 발행, 8월30일에 마감하여 9월30일에 가을 호 발행, 10월30일에 마감하여 11월30일에 겨울 호를 발행한다. 단 외국어판의 출판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6 조 (게재율)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거 60%-70% 미만으로 한다.

제 7 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게재하고 게재 발행된 논문에 속한 모든 권한(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8 조 (논문식별코드)

「신학과 실천」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는 온라인개별코드(DOI)를 부여한다.

투고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 조 (규정의 목적과 중요성)

투고규정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신학과 실천」의 편집 철학과 원칙을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학술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이므로 모든 투고자는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총괄하는 편집위원장은 이를 규정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2 조 (투고자 자격)

1. 「신학과 실천」 투고자는 한국실천신학회 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한 자로서 (회칙5조) 회비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주최 정기학술대회에 연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 2년 연회비를 일괄 납입하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2. 본 학회는 박사과정 학생 이상에게만 투고를 허용하며 기본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및 논문제안서심사를 통과한 학생으로 제한하되 학술지의 질적 수준과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제 3 조 (투고자의 기본의무)

1.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의 제3장이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즉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논문심사통과 또는 출판된 후에도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되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를 제한한다.

2.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 본 학술지 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지기 위해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 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작성법 준수)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하는 아래의 모든 논문작성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본 학회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문작성법을 따라야 한다. 본 학술지는 본 학회의 작성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시카고 스타일을 권장한다.
4. (맞춤법) 투고된 논문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다.
5.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도 가능하다.

제 4 조 (논문의 편제)

1. (초록의 질과 양) 본 학술지는 한글과 영어 초록을 요구하며 초록의 질적 수준에 높은 비중을 둔다. 투고된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논지와 내용을 적절하게 압축해야 한다. 단 지면의 경제성 측면에서 초록의 과도한 분량을 제한하여 한글초록의 길이는 A4 용지 1/2에서 2/3 정도를 권장하며 영어초록은 한글초록의 번역에 준하되 적절한 길이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는 한글과 영어 모두 5개 내외로 하여 한글과 영어 초록 바로 아래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의 구조) 본 학술지 논문의 구조는 제목, 저자정보,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논문, 참고문헌, 영어초록, 영어주제어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내용구분) 논문의 내용구분은 상위는 로마자(I, II, III...)로 하위는 아라비아 숫자(1, 2, 3...)로 구분하고 더 하위는 영문자(A, B,.. a, b...)로 통일한다.

제 5 조 (논문의 분량 제한)

논문의 분량은 한글과 외국어 논문 모두 A4 용지 13매-15매로 하며 초과할 경우 투고자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한다. 연구재단 지원 논문은 예외로 하되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자료의 사용)

1. (선행연구인용의 의무와 한도) 학술논문은 학술공동체의 역사와 대화에 참여하는 일이란 점에서 투고된 논문은 선행연구들과의 교류를 보여야 하며 이를 충분한 수의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신학과 실천」은 지면의 한계를 고려 투고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수를 각 30-50개로 요구한다. 30개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등재지논문 인용) 위 5조 1과 같은 이유에서 투고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충분히 인용함으로 회원간의 학술교류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 본 학회는 5개 이상의 인용을 권장한다. 같은 이유로 타 등재학술지 인용도 권장한다.
3. (인터넷자료 인용 제한 및 명기법) 투고된 논문은 논지의 근거로 다양한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인용자료는 안정성과 영구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에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인터넷자료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논문의 성격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자, 제목, 접속시간, 웹주소 순으로 명기해야 한다.
4. (그림과 도표 사용 제한) 본 학술지는 방법론적으로 인문학지의 범주에 속하므로 언어적 설명과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이에 투고된 논문은 글로 된 설명과 해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원칙과 지면의 경제성이란 측면에서 설명과 해석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과 근거인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논문의 성격상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극도로 절제된 내용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그림 또는 도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필수 첨부자료)

투고자는 반드시 다음 3개의 문서를 논문과 함께 투고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KCI논문유사도검사(10% 이내)
- 신청 및 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제 8 조 (논문 게재료)

논문게재료는 학술지 출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편집과정의 편의를 위해 전임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을 부과하며 외래교수(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은 일괄 20만원을 부과한다. 단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은 50만원을 부과한다. 연회비 미납자는 미납된 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입회원으로 투고할 경우 2년치 연원비를 함께 납입해야 한다.

제 9 조 (투고논문의 처리와 투고회수)

1. 논문원고 제출마감은 출판 1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2. 심사통과된 논문의 수가 많을 경우 응모 순에 따라 차호에 이월 게재할 수 있다.
3. 한 회원의 연간 게재논문의 수는 3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학술대회 발표논문)

1.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에 포함된 논문은 2-3개 이상의 논찬을 첨부해야 한다.
2. (신규발표논문의 학술지 게재의무) 본 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규로 발표한 논문은 본 학회 학술지가 아닌 타 학술지에 게재해서 안 되며, 발표논문의 학술지 게재는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심사규정이 정하는 모든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제 11 조 (투고논문의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는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연구부정의 조사와 처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처리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부록> 각주와 참고문헌 인용의 예

1. 각주작성 방식

한글로 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한다. 모든 논문 제목은 쌍따옴표로, 잡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외격쇠괄호 「 」로, 단행본은 쌍격쇠괄호 『 』로 묶어 표기한다. 단, 외국어 도서 제목과 간행물 제목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같은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 *Ibid.*, 210.
-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 *op. cit.*, 224; 또는 저자, 제목 표제어, 224.

1) 논문 인용의 경우

위형윤,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Talley, Thomas J. "The Eucharist Prayer: Directions for Development." *Worship* 51(1977), 316-25.

2) 저서 인용의 경우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35.

John S. McClure, *The Four Codes of Preaching: Rhetorical Strategies*, (Louisville, KY: WJK, 2004), 19-46.

3) 번역서 인용의 경우

폴 킬리히/ 송기득 옮김, 『폴 킬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34.

U. Luz, *Matthew*, vol. 1, tr. by James E. Crou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55.

Darrell L. Guder,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46.

4) 학위논문 인용의 경우

이영주,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0-40.

Jung Sik Cha, “Confronting Death: The Story of Gethsemane in Mark 14:32-42 and Its Historical Legacy,”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6), 55-57.

2. 참고문헌 작성법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인용된 자료에만 한하며 결론 다음에 아래와 같이 배열해야 한다.

- 1) 한글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한다.
- 2) 한글 자료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 자료의 경우는 A, B, C 순으로 정리한다.
- 3)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 4)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저술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한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 5) 동 저자에 의해 쓰인 저술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인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위형윤,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킬리히, 폴/ 송기득 옮김. 『폴 킬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Guder, Darrell L.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Harrington, Daniel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91.

Marcus, Joel.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 (1988/4), 663-675.

심사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지 심사규정을 정한다.

제 1 조 (심사절차)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규정심사, 전문심사, 최종심사 3단계를 거쳐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의 구성과 수)

심사는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하되 편집위원장은 규정심사와 최종심사에 책임을 지며 전문심사에는 간여하지 못한다. 전문심사는 학문적 수월성과 학제간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이념에 따라 논문 1편당 전공 2인, 비전공 1인 총 3인이 맡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위촉 및 심사비)

심사위원의 자격은 연구실적과 학회참여도 및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성에서 탁월한 학자로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논문심사자에겐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투고논문의 적격성)

1. 투고논문은 한국실천신학회가 추구하는 학술적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순수한 학술적 논문이어야 한다. 한국실천신학회는 다양한 실천신학적 분야들의 독자적 연구는 물론 학제간의 대화와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추구한다. 투고논문은 이 같은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투고규정 3조 1항이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이단종파에 소속된 투고자의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조 (심사 기준과 판정)

본 학술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심사는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2. 전문심사는 전문학자 3인(전공 2인 비전공 1인)이 투고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심층심사한다.
3. 전문심사의 내용: 구성의 완성도(20점), 주제연구의 심도(20점), 학문적 독창성(20점), 학문의 기여도(20점), 등재논문인용지수(20) 및 심사자평론.
4. 합격기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게재가, 79점미만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평가는 편집위원장이 하며 전문심사자 3인의 개별평가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근 거)

한국실천신학회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 제7조-1과 9조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본 연구윤리규정을 정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기대에 부합토록 본 학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강 령)

본 학회의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진리와 정의의 추구라는 전제 아래 특히 기독교 학술단체로서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정직과 진실 및 공정에 기초해야 한다. 정직과 진실과 공정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적 주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 역시 정직과 진실과 공정이 담보될 때만 유의미하다.

제 3 조 (실천원칙 -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윤리 원칙을 정한다.

1.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가 축적해온 학문적 성취를 성실히 전승하고 동료학자들과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학술교류와 상호존중을 통해 학문적 발전의 역사에 독창적으로 기여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모든 통용되고 허용되는 방식에 의해 타인의 기여 부분과 자신의 기여 부분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분 명시해야 한다.
2. 그 외 본 학회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가 규정하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연구대상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3. (투고자의 정확한 정보표기)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9 및 본 학회 투고규정 제2조-2와 제3조-2에 따라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직위를 표기하고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한다.
4. (투고자 제한) 본 학회는 투고규정 제2조-2에 따라 게재논문의 높은 학술적 및 윤리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박사과정 학생 이상에게만 투고자격을 부여하며 기본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및 논문제안서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되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여 논문에 대한 기여를 엄격히 관리한다.
5.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학회의 심사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6.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지는 내외부 학술연구지원비 운용에 적용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의 사용
2. 변조 -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3. 표절 - 적정한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사용, 자신의 것인 듯 오인케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역으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특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은 지도교수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학술지 등에 게재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정행위.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검증, 기간, 처리)

1. (검증의 책임)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1과 제17조에 따라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진다.

2. (부정행위의 제보와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는 본 학회 학술활동의 심사와 평가를 책임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받는다. 의심사항이 접수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및 기관장과 협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2와 제21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인을 30%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해당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 1인이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증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1, 제19조, 제20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착수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실명제보만 처리하되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최종판정 전까지 부정행위가 공표돼선 안 된다.
 - 피조사자는 조사 일정과 과정 및 조사자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피조사자는 소명과 이의제기 및 조사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부정행위 판정시 조치) 투고자나 발표자가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제 7 조 (연구지원비관련 부정행위 관리감독)

본 학회는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해 발생한 연구지원비를 운용함에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구비감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는 아래 위반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회원권을 정지하며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4.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 8 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과 교육)

본 학회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여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투고논문과 규정심사에서 KCI유사도검사 합격기준을 10% 이내로 엄격 관리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케 함으로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저의 경우 규정심사 단계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를 확인함으로 부정편승을 막는다.
3.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전정보도 심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심사 후에 심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심사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원칙을 따른다.
5. 업무상 심사대상자와 심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아는 편집위원장은 전문심사를 맡거나 그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심사인 규정심사와 정량심사인 최종심사에만 책임을 진다.
6. 본 학회는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정기적인 교육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제 9 조 (개 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 2007. 10. 19일, 2014. 2. 8. 총회에서 보완, 2017. 2. 11. 총회에서 보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9월 15일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실천신학회 각종사업일정

I. 한국연구재단

1. 2010년 12월 28일 등재학술지 선정(22호부터 해당)
2. 2010년 7월 1일 학술대회 지원금 1,500,000원 수령(결과보고서 제출)
3. 2010년 11월 23일 학술지 보조금 2,974,000원 수령(2011년도)
4. 결과보고서 제출(2012년 1.30일)
4. 학술지 발간 정시입력 및 등록 (30-33호)
5. 2011년 5월 30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2012년도분 지원금 5,160,000원 수령
6. 2011년 12월 30일 제43차 학술대회 연구재단 지원금 600만원 수령
7.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 7,400,000원 수령
8.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
9.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1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 등재유지
11.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12. 2014년 55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5월 500만원 수령(2015년도분)
13. 2014년 12월 27일 70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5년도분)
14. 2016년 5월20일 제63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9,000,000원 수령(2016년도분)
15. 2016년 12월 28일 56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6년분)

II. 한국실천신학회 홈페이지개설

1. 직접입력 : www.praxis.or.kr 한국실천신학회
2. 혹은 모든 사이트에서 「한국실천신학회」를 치고 홈페이지 들어감,
3. 모든 학회논문 신학과 실천자료(창간호-52호까지) 볼 수 있음.
4. 회원 등록하고(본 회원은 의무사항) 승인 받은 다음 글쓰기를 할 수 있음.
5. 홈페이지에서 관련사이트에서 학술교육원,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연구재단 연결
6. 홈페이지는 학술교육원에서 무료설치 제공(하드 200M/트래픽 600M)
유지비(서버회선사용료) 년 12만원 월1만원
7. 2010년 12월 31일 학술교육원과 디지털컨텐츠 협약
5년간 매년 25% 저작권료 논문 발행자 한국실천신학회에 지불(발행규정7조)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운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8. 2014년 4월 학술교육원과 새홈피 및 관리, 논문시스템관리, DOI시스템관리비와
저작권료와 교환 =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운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III.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 2016년 12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인용지수 최고수준 홈페이지사상 참조

No	대분류	중분류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학술지 외국어명	논문수 (2013+2014)	피인용횟수 (2015기준)	KCI 영향력지수 (2년 KCI IF)	WOS-KCI 통합 영향력지수 (2년 IF)	KCI 중심성지수 (3년분 기준)	자기인용 비율(%) (2년 KCI IF)
392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시가문학학회	한국시가문학연구	The Studies in Korean Poetry and Culture	52	32	0.62	0.62	1.25	12.5%
393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시가학회	한국시가연구	Korean Classical Poetry Studies	40	19	0.48	0.48	1.17	15.8%
394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시조학회	시조학논총		26	11	0.42	0.42	0.89	9.1%
395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The Korean Poetics Studies	62	57	0.92	0.92	1.64	15.8%
396	인문학	역사학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신석기연구	Journal of the Korean Neolithic Society	15	8	0.53	0.53	1.03	50.0%
397	인문학	기독교신학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Korean New Testament Studies	67	27	0.40	0.40	0.65	37.0%
398	인문학	종교학	한국신학교학회	신종교연구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35	14	0.40	0.40	0.79	14.3%
399	인문학	기독교신학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THE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60	17	0.28	0.28	0.55	41.2%
400	인문학	종교학	한국신학정보연구원	Canon&Culture(케논&문화)	CC	37	5	0.14	0.14	0.57	40.0%
401	인문학	기독교신학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Theology and Praxis	208	305	1.47	1.47	0.46	88.2%
402	인문학	역사학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Korean Silhak Review	44	24	0.55	0.55	1.20	0.0%
403	인문학	문학	한국아동문학학회	한국아동문학연구	KOREA CHILDREN'S LITERATURE	30	23	0.77	0.77	1.17	43.5%
404	인문학	문학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36	28	0.78	0.78	1.35	25.0%
405	인문학	기타동양어문학	한국아랍어아랍문학학회	아랍어와 아랍문학	Arabic Language&Literature	27	6	0.22	0.22	0.71	16.7%
406	인문학	영어영문학	한국아메리카학회	미국학 논집	Journal of American Studies	75	23	0.31	0.31	0.70	26.1%
407	인문학	기타인문학	한국알타이학회	알타이학보	ALTAI HAKPO	26	2	0.08	0.08	0.68	50.0%
408	인문학	철학	한국영명학회	영명학	YANG-MING STUDIES	65	23	0.35	0.35	1.10	21.7%
409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Korean Language Education	119	144	1.21	1.21	1.61	14.6%
410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語文研究)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132	93	0.70	0.70	1.18	6.5%
411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Journal of Korean Culture	Journal of Korean Culture	52	22	0.42	0.42	0.83	9.1%
412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어문학학회	어문학	EDMUNHAK-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0	78	0.65	0.65	1.15	5.1%
413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한국어어미학회	한국어 어미학	Korean Semantics	97	93	0.96	0.96	1.96	5.4%

■ 2018년부터 년5회 발행 예정: 홈페이지에서 논문원고접수, 심사시스템, 검사 등

- 1) 제58호 1월 20일 원고마감, 한글논문 2월 28일 발행- 한글논문
- 2) 제59호 4월 20일 원고마감, 5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 3) 제60호 6월 20일 원고마감, 7월 30일 발행- 외국어 논문(영어와 독일어)
- 4) 제61호 8월 20일 원고마감, 9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 5) 제62호 10월 20일 원고마감, 11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게재비 일반논문 30만원, 년회비 3만원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6만원

기존회원 년회비 미납자 2년분

학술지원논문 50만원, 년회비 3만원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투고규정 2조 2항에 의하여 A4용지 13-15매 초과시 1매당 초과 게재료 2만원, 단 연구지원 논문은 25매를 초과 지원할 수 없다.

회칙개정발후 4월부터 강사는 게재비 20만원으로 조정/ 단 논문 제출시 소속과 직급표기, 2015년부터 심사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심사비 문제

6. 논문제출시유의사항

1. 홈페이지에서 관련사이트에서 논문투고시스템 - 회원가입후에-논문투고 학술지 투고

- 안내에서 지원서 및 서약서 양식다운 받아 논문과 함께 제출
2. 각주와 참고문헌과 숙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정을 지켜 주실 것
 3. 한글초록과 영문초록은 10포인트를 기준하여 1면 중 3분의 2 내외로 할 것
 4. 연구윤리규정을 읽고 숙지할 것
 5. 논문 구성은 대지는 I. II. III. IV. 소지는 1. 2. 3. 4. 등
서론은 들어가는 말, 결론은 나가는 말
 6. 참고문헌과 각주는 30개 내외
 7. 각주의 인용은 등재지 신학과 실천 5개 이상을 필수로 인용해야 함, 기타 타논문
등재지 인용 5개 = 각주와 참고문헌인용은 30개이상 필수사항임
 8. 올해부터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에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운용**합니다.
우선은 본인이 자기 논문을 문헌 유사도 검사 시스템에서 검사하여 투고하기 장려합니다.

IV. 편집위원접수관리 안내

1. 편집위원 전국분포도 접수반영 5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강원도 제주도, 외국)
편집위원 : 서울/경기 : 위형운 김한옥 민장배 안석
전라도 : 김충렬 오오현
충청도 : 이명희 한재동 황병준
경상도 : 허도화 차명호
제주도 강원도 :
외국: 일본 박현욱, 미국 허정갑
2. 편집위원 평가 직전 3년간 논문등재지, 후보 등, 저서 등 5개
경력 등 5개 : 학술대회연구발표, 논평, 사회사단법인 봉사실적,
교내 보직 등 기타경력 등
3. 반드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자 정보에 편집위원의 실적을 제목과 출판사, 출판
학회, 논문지, 등을 그때 그때 올려 주시고 공개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아이디 가능) 한국연구재단에 문의(02-3460-5737) 바람

V. 한국실천신학회 통장개설 안내

1. 총입출입 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한국실천신학회
2. 논문게재비 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한국실천신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신학과 실천」 연혁보고

1. 1890년 한국최초 예배서 감리교 미이미교회강례(美以美教會綱例) 아펜셀러 번역, 1924년 한국인 최초 장로교 혼상예식서 발간, 1925년 성결교 최초 교리 및 예식서, 1901년 중국어도서 감리교 목사지법(牧師之法) 울링거 역, 1919년 한국최초 평양 신학교 객안련 선교사의 설교학, 목회학 책을 출간, 1937년 한국인 최초 목회학 저서 성결교 김응조의 목회학 출간, 그 이후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한국실천신학은 전수되었다.
2. 1960년대 후반 한국실천신학회는 한국교회 최초 실천신학 관련교수들이 김소영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전국순회 강연을 통하여 한국실천신학회의 모태를 형성하였다.
3. 1970년대 김소영, 박근원 등을 중심으로 실천신학 사전, 예배학 원론 번역 출판.
4. 1972년 제1회 한국실천신학회가 부산호텔에서 창립 김소영, 홍현설, 허경삼, 안형식 등 학술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사상 사장으로 김소영, 편집위원 박근원 정장복 등 목회자들을 위한 학문의 장을 제공하였고, 정장복은 교회력에 의한 핸드북, 김종렬은 예배와 강단을 매년 출판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4대 박근원은 김소영 등과 함께 1992년 한국실천신학회의 주멤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공동학회가 발족되었고, 그리고 7대 정장복 회장이 학술대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1997년 9월 30일 정장복 회장과 9대 김외식 회장의 주도아래 「신학과 실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동시에 정장복 회장의 주도로 예배학 사전과 설교학 사전이 출판되었다.
5. 2003년 12대 문성모 회장, 13대 백상열 회장, 14대 위형운 회장, 현재 15대 김윤규 회장, 16대 조기연 회장, 17대 김세광 회장에 이르는 동안 학술대회 년4회 올해 39 회째, 학술지 년4회가 발행되어 현재 33호가 발간되었다.
6. 2003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제6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ISSN 1229-7917가 부여되어 정식 출판물 발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신학대학교 도서관 등에 약 100부가 발송되고 있다.
7.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지학회로 회원가입인증번호 학단연 2004-1호 가입되었다.
8. 2005년 학술교육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서 무료로 계약.
9. 2007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78.3점 (75점이상 합격).
10. 2008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내학술지발행지원비 신청하여 1,796,000

원 수령.

11. 2009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등재후보 계속평가 1차 합격 82점 (80점 이상).
12. 2010년 2월 5일 학술교육원으로부터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11명의 한국실천신학회 이사회 조직하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13.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비 신청 1,500,000원 수령(2011년 제39회 학술대회를 위한 지원비).
14.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학술지원비 신청 2,974,000원 수령.
15. 2010년 7월 1일 등재지 신청하여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92점 (80점 이상).
16.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학술교육원 디지털컨텐츠 협약서 5년간 체결 (저작권료 25% 지급 발행 규정 제7조 저작권 본 학회 소유).
17. 2011년 5월 30일 신학과 실천 연구재단으로부터 5,160,000원 지원비를 수령하다.
18. 2011년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43회 학술대회 지원비를 수령하다.
19.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24호-27호 현장실사 합격
2011년 12월 28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123-82-70014 안양세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 지정
20. 논문게재의 총수는 1호부터 제33호까지 446편으로 모든 학회원들, 특히 신진학자들의 기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자들의 장은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21.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하다.
22. 2013년도 5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점 등재유지
한국실천신학회 홈페이지 개편 및 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시스템 개통
23.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24.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25. 학술지 신학과 실천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술정보원과 년1백만원 계약(관리비)- 홈페이지에서 클릭
26. 출판된 모든 개별논문에는 온라인논문개별고유코드(DOI)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 해당 원문 및 해당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27. 201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보조금 500만원, 학술지원비보조 700만원 수령(2015년도분)
28. 2014년 10월 30일 연구윤리 국제포럼 교육이수(13시간)
29. 논문게재 총수는 1호부터 현재 37호까지 514편이다.

30. 2014년도 논문게재 38호-42호 총 113편으로 현재 총합계 627편이다.
31. 2015년도 논문게재 43-47호 총 107편 현재 총합계 734편이다.
32.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재유지 89.75점으로 합격
33. 201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비 5,600,000원 수령
34. 2015년 11.20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대학기관 생명윤리위원회협회 연구윤리포럼 이수
35. 2015년 11.20 연구윤리교육 연수과정 수료-한국학술단체연합회
36. 2016년 1.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37. 2016년부터 모든 교수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윤리교육 의무 인터넷교육 필수
38. 2016년 5월20일 제63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9,000,000원 수령(2016년도분)
39. 2016년 12월 28일 56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6년분)
40. 2016년 논문게재수 48호-52호 = 122편 게재
41. 한국연구재단 KCI 2015 인용지수(2016년기준)
 논문수(2013+2014)= 208, 피인용횟수(2015기준)= 305, KCI영향력지수(2년 KCI IF)= 1.47, WOS-KCI
 통합영향력지수(2년 IF)= 1.47, KCI중심성지수(3년분 기준)= 0.46, 자기인용비율(2년 KCI IF)= 88.2%
42.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검사 서비스 개설
43. 2016년 연구윤리교육 김명실(부편집위원장)
 1. 제1차 연구윤리포럼 (16년 6월 9일; 진주 경상대학교)
 2. 제2차 연구윤리포럼 (16년 10월 19일; 서울교대)
 3. 국내 학술정보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DOI 인프라 체계 적용 계획 설명회(16년 8월 30일; 서울 교육회관)
44. 연구책임자를 위한 윤리교육 위형윤 편집위원장 유효기간: 2016년 1.1-2019년 1월 4일(3년)

신학과실천 편집위원장 위형윤

제23대 한국실천신학회 조직표

고 문

고 문	박근원	박사	전 한신대학교 총장
	정장복	박사	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김외식	박사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김종렬	박사	새 고을기독서원 원장
	문성모	박사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백상열	박사	은진아카데미 원장
책임고문	위형윤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김윤규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이요섭	박사	세종대학교 부총장 교목실장
	조기연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김충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김성민	박사	협성대학교 명예교수
조재국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제8대 이사회

이사장	김한옥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상임이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수석이사	김경진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사	윤성민	박사	강남대학교 교수
	권명수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계재광	박사	한남대학교 교수
	김윤규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김수천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박종환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신현광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김옥순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이말테	박사	루터대학교 교수	

제23대 임원명단

회 장	김경진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선임부회장	김상백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
부회장	황병준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민장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총 무	서승룡	박사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부총무	안선희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재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서 기	박은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교수
부서기	박진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회 계	김병석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외래교수
부회계	김영수	박사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감 사	신현광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감 사	윤성민	박사	강남대학교 교수

전공학술분과 회장

목회사회/리더십분과	회장	계재광	박사
설교분과	회장	김윤규	박사
상담치료분과	회장	권명수	박사
영성분과	회장	김수천	박사
예배분과	회장	박종환	박사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회장	김옥순	박사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회장	구병옥	박사
교회교육분과	회장	신현광	박사

신학과실천 논문편집위원회

발행인	김 경 진
편집위원장	한 재 동
부편집위원장	김 명 실
회계	김 상 백
부회계	김 형 락
편집위원	편집고문: 위형운 김충렬, 김명실, 허도화, 황병준, 오오현, 차명호, 민장배 김옥순, 朴憲郁(일본), Paul Huh(미국), Nahamm Kim(독일)

특별연구분과위원회

국제학술분과위원장	홍주민	박사	한국신학대학교 연구교수
간사	최동규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학술발표분과위원장	문병하	박사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간사	정재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문편집분과 위원장	위형운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간사	안 석	박사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논문자체평가 및 심사분과위원장	이현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간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학진등재업무추진 공동위원장	위형운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국제관계진흥위원회위원장	이말테	박사	루터대학교 교수
간사 및 위원	간사 / 반신환(한남대학교 교수) 위 원 / 김나함(독일 마부르크대학교 교수) 허정갑(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학회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문성모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간사 및 위 원	간사 / 위형운 위 원 / 김윤규(기장) 조기연(성결교) 김세광(예장통합) 이요섭(감리교) 조재국(감리교) 이명희(침례교) 박해정(감리교) 민화규(예장대신)		
실천신학대전 편집위원회위원장	위형운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간사 및 위 원	간사 / 안 석 이정광 김수천 위 원 / 김윤규 조기연 김세광 안민숙 유재원 그 외 전공분과별		
한국세시풍속과교회력연구위원장	김순환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류원렬 위 원 / 하도균 이승진 그 외 지원자	
한국전통혼상제및기독교 성례전연구위원장	조기연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김형락 위 원 / 김형래 김명실 그 외 지원자	
한국10대성장동력교회위원회위원장	조재국	박사 / 연세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조성돈 김선일 위 원 / 위형윤 김윤규 김세광 이요섭 김충렬 이명희 김한옥 정재영 최동규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학회로고의 의미

- *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음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교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성 속 다양성, 다양성 속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회의 간학제적 정신을 담고 있다.
- * 3의 수는 삼위격의 상호관계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교회, 인격, 공공사회)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 * 가운데 사자 모양은 “실천”과 “신학”의 한글 첫 자음문자 **ㅅ** 및 헬리어 λ 로 성육적 진리를 뜻하는 로고스를 나타낸다.
- * 사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상징한다.
- * 외부의 둥근 녹색의 삼각 모양 3개는 한국 땅을 수놓아 온 산과 언덕을 나타내고, 가운데 사자의 푸른색은 한국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수를 나타낸다.
-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보편적 교회의 전통과 특수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실천신학의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고 대화함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
- * 로고의 상징은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라는 표어에 의해 보강 설명된다.

한국실천신학회 설립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ww.praxis.or.kr

발행일 2019년 9월 15일

충남 천안시 월봉로 48번지 나사렛대학교 지혜관 220호

전화 : 041-570-1836, 010-7936-1111(한재동)

이메일 : boc1982@hanmail.net

학회은행계좌 총입출금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학술지계재비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